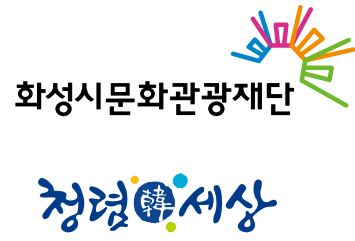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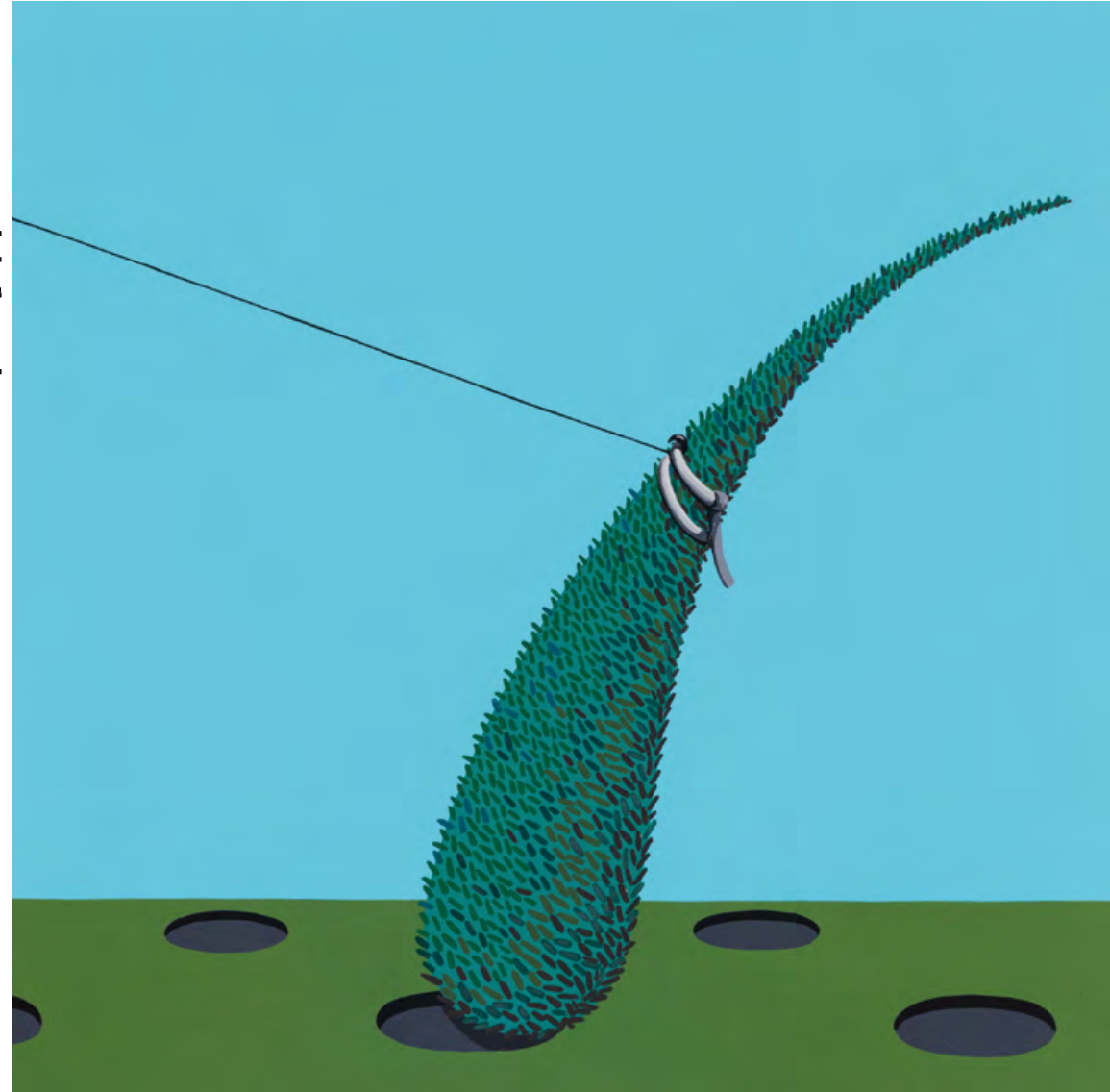


Vol. 71 2026 여름과 가을 사이

멀티 페르소나

화성시문화관광재단



Editor's Letter

멀티 페르소나: 나의 스펙트럼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소원도 유리창이나 카페의 통창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유리는 묘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낮의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그 너머의 풍경을 투명하게 비추지만,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면 어느새 거울처럼 내 얼굴을 또렷이 비춰주곤 합니다. 같은 유리일지라도 빛이 드는 방향과 내가 서 있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을 드러내는 것이죠.

문득 우리의 페르소나 역시 이 투명한 유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른 면모가 튀어나올 때면 때론 낯설고 이질적인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두 ‘나’라는 단단한 본질을 통과해 나온 다채로운 빛의 결들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수많은 얼굴은 서로를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다채로운 층위가 되어줍니다.

《화분》 71호는 이렇게 투명하게 반짝이는 우리 안의 수많은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당차게 살아 숨 쉬는 또 다른 나의 모습부터, 빛과 그림자로 삶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예술가의 시선, 그리고 일상이라는 무거운 옷을 잠시 벗어두고 저마다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온전한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이들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나다움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나의 세계를 얼마나 다채롭게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주하는 나의 여러 얼굴이 비록 조금은 서툰고 낯설지라도, 그 모든 순간은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아름답게 빛내주는 스펙트럼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호 《화분》과 함께 내 안의 숨겨진 새로운 빛깔을 발견하고 음미하며, 나를 이루는 다채로운 결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분》 에디터 백미희

작가 노트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공적 구조와 예측할 수 없는 생명력이 뒤섞이는 풍경을 담는다.
화면 속 거대하게 확장된 풀은 성장과 개발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변수이자 통제 불가능한 결과물이다. 크레인과 여러 구조물이 욕망의 흔적을 드러낸다면, 비정상적으로 커진 풀은 그 질서를 교란하며 새로운 변수를 제시한다. 이 혼종적 풍경을 통해 양가적인 충돌 속에서 생성되는 욕망의 변수와 낯선 가능성을 나지막한 긴장감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혼종의 공간>, 2025, 캔버스에 아크릴, 45.5×45.5cm
최유희



2026 여름과 가을 사이 Vol. 71

발행처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T. 031-8015-8112
hcf.or.kr

발행인
안필연

편집본부장
정지영

편집팀장
최용운

기획
원예빈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주)
T. 031-247-5141

ISSN 2671-6445

《화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외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용지를 사용합니다.

Contents

INTRO		당신의 부캐는 무엇인가요?	6
THE 답다	Focus	노을빛 음악과 찬란한 불꽃의 교감 2026 화성 서해안 선셋 콘서트 & 바다빛 불꽃쇼	16
	Interview 1	떠났다가 돌아온 땅에서 기꺼이 춤추는 법 고선웅 연출가	24
	Interview 2	사라져가는 풍경 속, 투명한 유리로 새겨낸 삶의 문장들 용하현 작가	34
	Interview 3	예술과 사람을 잇는 가교가 되다 1기 전시 자원봉사 도슨트 길현, 구나경, 김수정, 박영임	44
	List	각자의 삶에 해금을 더해, 일상의 행복을 켜다 화성특례시 생활문화동호회 ‘해금더하기’	52
	Talk 1	다채로운 왕 정조, 화성에 지극한 효심을 남기다	60
	Talk 2	또 다른 내가 전하는 응원 언널브의 에세이 톨	68
	Critique	여름밤의 오케스트라, 클래식이 영화의 숨결을 탐닉할 때	74
THE 가다	Walk	길 위에서 역사를 거닐고, 예술로 호흡하다	82
	Travel	우리는 화성으로 피서간다 당일치기 여름 탈출 여행	92
THE 하다	Preview	화성, 예술로 물들다	102
	Culture & Issue	문화캘린더	120
	Place	배포처 및 구독 안내	122
	Diy	서해안 선셋 오브제 모빌 만들기	123

당신의 부캐는 무엇인가요?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어른들에게 저마다의 '부캐'가 있듯,
아이들의 세상에도 아주 특별한 '또 다른 나'가 살고 있다.
나의 이야기를 직접 춤으로 만들고 함께 무대를 완성해 가며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꿈의무용단' 화성 단원들.
춤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소통하며 저마다의 우주를 넓혀가는
당찬 무용수들의 '부캐 자랑'을 지금 만나보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면 누구보다 목소리가 커지는 활발한 성격의 연우. 하지만 모르는 친구들 앞에만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꼭 닫아버린다. 이처럼
 암전함과 활달함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연우의 반전 부캐는 ‘암전이’다.
 “어른들은 저를 조용한 아이로만 아시는데, 친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 때는 엄청
 활발해요. 다만 안 친한 친구가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주기 전까지 조용해져요.
 조금 게으른 면도 제 본 모습 중 하나랍니다(웃음).”

연우



가녀린 체구로 발레리나인 줄 알았다는 오해를 받곤 하지만,
 알고 보면 일곱 살 때부터 도복을 입어 온 베테랑 태권 소녀. 정식으로 선수 등록까지
 마치고 진지하게 운동에 임하는 서연이의 부캐는 ‘태권도 품새 선수’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벌써 선수 등록도 되어 있고
 대회도 나가고 있어요. 도복을 입고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서연



엄마를 배꼽 잡게 만드는 도경이의 특기는 인터넷에 유행하는 온갖 짤방과 드라마 장면 따라 하기다. 남다른 표현력과 큰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언제나 즐겁게 만드는 도경이의 톡톡 튀는 부캐는 바로 ‘ميم 천재’.

“웃긴 표정을 짓거나 행동할 때마다 엄마가 ‘개그맨 같다’고 하세요. 유명한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 장면이나 소리 지르는 비버 짤 같은 걸 좋아해서 가끔 따라 하거든요. 목소리가 좀 커서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시긴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도 자주 보여줘요!”

도경



쉬는 시간마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사물함이나 자물쇠를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귀여운 사고뭉치 시진이.

그래서 시진이가 갖고 싶은 부캐는 ‘차분한 모범생’이다.

“학교나 집에서 시끄럽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성격을 좀 고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시험을 조금 망치기도 해서(ㅠㅠ)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싶거든요. 모범생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일 1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해보려고요.”

시진



초등학교 1학년 때 TV 속 아이돌이 멋있어 보여 시작한 춤.
 케이팝 댄스로 시작해 이제는 리듬과 기본기까지 탄탄히 다지고 있는
 윤진의 부캐는 '케이팝 댄서'.
 “방과 후 수업과 학원을 다니며 5년 동안 춤을 배웠어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을 때 정말 짜릿한 기분이 들거든요.
 나중엔 저만의 춤을 직접 만드는 ‘안무가’가 되고 싶어요.”

윤진



언뜻 보기엔 누구의 말이나 귀를 기울여주는 다정한 친구 같지만, 사실 해밀이는 친한
 사이일수록 확실한 정답을 내려주고 싶어 하는 뿔속까지 이성적인 인티제(INTJ) 소녀.
 결과 속이 다른 해밀이의 시크한 부캐는 ‘팩트 폭격기’. “안 친한 사람들은 저한테
 감성적인 에프(F)냐고 묻지만, 친한 친구들은 다 저보고 극티(T)라고 해요. 고민 상담을
 할 때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해주는 것보단 솔직한 답을 주고 싶거든요. 저는 고민이 있을
 때도 친구들보다는 챗GPT를 찾는답니다. 공감보다는 해결법을 찾고 싶어서요.”

해밀

따뜻한 빛의
흐름 아래,
마음과 감각을
회복하는 사유의 시간

Focus	
노을빛 음악과 찬란한 불꽃의 교감	16
Interview 1	
떠났다가 돌아온 땅에서 기꺼이 춤추는 법	24
Interview 2	
사라져가는 풍경 속, 투명한 유리로 새겨낸 삶의 문장들	34
Interview 3	
예술과 사람을 잇는 가교가 되다	44
List	
각자의 삶에 해금을 더해, 일상의 행복을 켜다	52
Talk 1	
다채로운 왕 정조, 화성에 지극한 호심을 남기다	60
Talk 2	
또 다른 내가 전하는 응원	68
Critique	
여름밤의 오케스트라, 클래식이 영화의 숨결을 탐닉할 때	74

노을빛 음악과 찬란한 불꽃의 교감

2026 화성 서해안 선셋 콘서트 & 바다빛 불꽃쇼

"모든 아름다운 것은 순간 속에 머문다. 그러나 그 순간의 기억은 영원을 관통한다."

뜨거운 여름날,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붉은 낙조와 칠혹 같은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이 만들어낼
찰나의 아름다움이 화성 서해안에 영원한 낭만의 기억을 새기려 한다. 한여름의 띄약별이 한풀 꺾이고
서해의 바닷바람이 선선하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식혀줄 무렵, 화성의 해안선은 일상의 피로를 다독이는
거대한 예술의 장으로 변모했다.

정리 이유정(편집실) 사진 이대원(싸우나스튜디오)





지난 7월 11일, 화성 황금해안길 3코스의 서해마루와 궁평항 일대에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2026 화성 서해안 선셋 콘서트 & 바다빛 불꽃쇼’가 열렸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서해안의 명소 5곳을 수놓을 특별한 선셋 음악여행의 두 번째 여정이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경계선 위에서, 서해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무대로 변모했다. 수평선 너머로 붉게 저무는 낙조를 배경으로 펼쳐진 고품격 음악 공연,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은 해상 불꽃의 향연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찰나의 영원성을 선물했다.

붉은 낙조 아래 피어난 축제의 서막

오후 6시, 행사의 주무대인 서해마루 옥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200명의 관람객들은 입구에 마련된 종합 안내소에서 예약 확인을 마치고, 축제를 기념하는 종이 모자를 받아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낮의 맹렬했던 열기를 부드럽게 식혀주는 기분 좋은 바닷바람이 옥상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뺨을 스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입장 시 제공된 토퍼를 들고 개인 SNS에 인증 사진을 남기면 하트 모양의 LED 부채를 증정하는 이벤트는 가족,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으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경쾌하게 끌어올렸다.

사람들은 옥상에 아늑하게 마련된 컨버터블 의자에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는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다가올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만세구 남양읍에서 8세 자녀, 그리고 지인의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다는 이주영 씨는 “화성시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만세구 인근에는 이처럼 큰 문화 행사가 드물어 무척 반가운 마음이 컸어요. 예전에 숙박하며 좋은 기억을 남겼던 친근한 서해마루에서 지인들과 특별하게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어, 오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엄마의 곁에서 종이 모자를 쓴 아이들은 바다 너머로 떨어지는 해를 가리키며 웃음을 터뜨렸고, 함께 온 지인들은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노을빛 국악과 은빛 오케스트라의

완벽 교감

오후 6시 40분, 화성시예술단 국악단이 무대에 오르며 본격적인 선셋 콘서트의 막이 올랐다. 진행자이자 지휘자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일사불란한 호흡과 깊은 내공으로 국악의 진정한 멋을 뽐냈다. 가야금, 해금, 장구 등 국악기가 빛어내는 깊은 울림은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얼씨구”, “지화자”, “좋다” 객석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흥겨운 추임새는 국악의 선율에 역동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어느새 관객과 무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쌍방향 예술로 완성되었다. 밀양아리랑의 세마치장단이 경쾌하게 울려 퍼지자, 관객들의 얼굴에도 낙조의 붉은빛과 뭉클한 열기가 내려앉았다. 이어진 뱃노래에서 ‘어야디아’ 선창과 후창이 흥겹게 오가며 국악단과 관객 사이를 꽉 채우다 끝날 무렵에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거대한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바통을 이어받은 수원대학교 USW 챔버 오케스트라 14인이 무대에 자리했다. 첫 곡으로 저무는 해를 닮은 ‘붉은 노을’을 연주하며 본격적인 무대를 열었고, 이어 대중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OST를 비롯해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세트리스트를 선보이며 관객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클래식 선율이 허공을 가를 때, 바다 역시 예술의 일부가 되었다. 간조로 인해 서서히 그 광활한 모습을 드러낸 갯벌이 은은한 달빛을 머금고 반짝이는 가운데, 밤공기를 어루만지는 현악기의 크레센도는 시각과 청각이 결합한 경이로움을 선사했다. 관객들은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은 채 오롯이 음악의 파도에 몸을 맡겼다.

어둠을 깨고 피어난 열정의 꽃, 불꽃

같은 시각, 이원화된 축제의 또 다른 무대인 궁평항 수산물센터에서는 수원대학교 트롬본 과이어의 묵직한 선율이 밤바다를 낭만으로 채우고 있었다. 대규모 인파의 밀집을 방지하고자 무대를 이원화하고 주요 길목마다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한 주최 측의 배려 덕분에, 관람객들은 어떠한 번잡함이나 불안감 없이 쾌적하게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쏟아 올려질 빛의 축제를 기다릴 수 있었다. 네 대의 트롬본이 만들어내는, 깊고 풍부한 울림은 곧 이어질 불꽃쇼에 대한 설렘을 증폭시켰고, 광장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사위가 어둑해진 궁평항의 정취를 만끽하며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었다.

마침내 오후 8시 30분, 궁평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모두가 고대하던 축제의 하이라이트 ‘바다빛 불꽃쇼’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철저한 안전통제구역으로 엄격하게 관리된 해상에서 첫 포가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밤하늘로 솟구치자, 광장에 모인 수많은 관객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삼페인 빛을 띠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불꽃, 다양한 모양으로 변주하며 실 새 없이 하늘을 수놓는 폭죽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장관을 이루었다. 숨을 죽인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로는 다채로운 불꽃의 빛깔이 황홀하게 어른거렸다. 이내 짙은 수면 위로 선명하게 번져가는 불꽃의 잔영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며, 궁평항 일대를 거대한 빛의 축제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눈부시게 만개한 불꽃은, 마치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일상을 살아낸 시민들을 향한 다정한 헌정 같았다. 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열정의 꽃들을 말없이 바라보며, 사람들은 고단했던 마음에 깊은 위안을 얻고 또 다른 내일을 힘차게 살아갈 뜨거운 에너지를 가슴 가득 채워 넣었다.





질은 여운을 남긴 한여름 밤의 낭만 향해

“낮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쳐 있었는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해지네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꼭 취업에 성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불꽃의 질은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궁평항 광장 곳곳에서는 만족감 어린 관객들의 훈훈한 감성과 웃음 소리가 교차했다. 밤하늘의 축제가 끝난 후에도 어떤 이들은 간만에 모인 지인들과 함께 바로 옆 수산물 직판장으로 발걸음을 돌려, 싱싱한 회를 즐기며 그날의 감동을 안주 삼아 회포를 풀었다.

각자의 소망과 위로를 가슴에 품은 채, 사람들은 안전요원들의 부드러운 안내에 따라 천천히 궁평항을 빠져나갔다. 빛과 음악, 바다와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교차한 화성 서해안의 밤. ‘2026 화성 서해안 선셋 콘서트와 바다빛 불꽃쇼’는 단순한 여름밤의 볼거리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예술이 전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한 완벽한 낭만의 향해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2026 화성 서해안 선셋 콘서트 & 바다빛 불꽃쇼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연 일정 안내

회차	일정	콘셉트	장소
1	2026. 6. 13.(토)	바다의 서곡_‘자연 힐링’ 오션뷰의 선셋을 만나는 고즈넉한 감성	전곡항 광장
2	2026. 7. 11.(토)	하늘길의 선율_‘어반 루프탑’ 루프탑 선셋에서 야경으로 변하는 순간	서해마루 옥상
3	2026. 9. 12.(토)	대지의 노래_‘초원 피크닉’ 넓은 평야에서 즐기는 이색적인 선셋 공연	화성 에코팜 테마파크
4	2026. 10. 3.(토)	노을에 기대다_‘바닷길 콘서트’ 물때에 맞춰 열리는 신비로운 무대	제부도 매바위 광장
5	2026. 10월 중	선셋 심포니_‘잔디밭 피크닉’ 돗자리와 빈백 위에서 즐기는 편안함	궁평 관광지 (확정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 문의 031-290-4622 / 031-8015-8222

※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떠났다가 돌아온 땅에서 기꺼이 춤추는 법

고선웅 연출가

하늘에서는 아버지를, 땅에서는 어미를 잃은 토끼가 고난 가득한 육지를 떠나 미지의 세계, 수궁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토끼는 꿈꾸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창극 <귀토>의 제목에는 ‘거북과 토끼(龜兔)’와 ‘살던 땅으로 돌아온다(歸土)’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 신명 나는 장단과 소리가 휘몰아친 끝에 극은 말한다.
바람을 피하는 대신,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기꺼이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글 박채림(편집실) 사진 이대원(싸우나스튜디오)





사진제공 국립창극단

지난해 서울시극단 예술감독 임기를 마무리하고, 극공작소 마방진 20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2022년 <회란기> 이후 다시 화성 관객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화성을 찾은 소감을 들려주세요.

<귀토>는 2021 초연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연출가님께서 이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다음 작품을 마음속으로 가늠하고 있지요. 마방진 20주년 기념 작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귀토> 연습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연습도 분위기가 무척 좋았어요. 기존에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과 새로운 주역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소리와 호흡도 잘 맞았습니다. 즐거운 출발이었지요. 더 나아가 이번 공연에서는 작품을 조금 더 다듬고 호흡도 정리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밀도 있게 완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연출가로서 공연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화성 관객들도 분명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공연이 계속해서 무대에 다시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본을 쓰고 작창도 해야 하고, 연습과 의상, 무대 설치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든 작품이 무대에 다시 오르지 못한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귀토>가 화성의 관객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한동안 수원에서 예술감독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 화성은 심적으로도 가까운 도시입니다. 다시 찾게 돼 감사하고, 그만큼 신나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구나 아는 판소리 <수궁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친숙합니다. 익숙한 이야기지만 조금 비틀어 새로운 재미를 더했지요. 전통 판소리에 뿌리를 두면서도 장단은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공연을 거듭하며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고 호흡을 다듬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극 중 토끼는 더 나은 세상을 찾아 물속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포식자가 있고 인간의 탐욕이 드리워진 또 다른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결국 토끼는 다시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지요.

때로 우리는 현실이 힘들 때 다른 어딘가로 떠나면 더 행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삶의 고단함은 존재하지요. 결국은 내가 디딘 자리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관객에게도 공감을 얻으며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새로운 주역 캐스팅으로
선보이는 첫 무대입니다. 초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공연에서는 과감하게 떨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원작의 ‘산중호걸’ 대목도 최대한 충실하게 담아보려 했지만, 공연 전체의 호흡으로 보면 관객은 토끼와 자라 이야기에 계속 집중하게 되더군요. 그 부분을 덜어내고 나니 작품이 훨씬 긴박하고 밀도 있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배우들도 기대 이상입니다. 소리와 연기, 앙상블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아요. 어떤 무대가 완성될지 저 역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출가님 작품에는 늘 웃음과
해학이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창극은 장단의 힘이 굉장히 큰 장르입니다. 동살풀이처럼 신명 나는 장단이 시작되면 관객도 어느덧 자연스레 작품 속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몸으로 기억하는 리듬입니다. 반대로 계면조 같은 느린 가락이 흐르면 또 다른 풍취가 생깁니다. 흥겨움과 슬픔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사이 감정도 깊어지지요. 웃음과 해학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피어납니다. 정신없이 웃다가 문득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 그게 창극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창극은 함께
놀게 되는 장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지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너끈너끈하게 넘어가는 거지요. 슬픈 노래가 혹 들어오면 어느새 눈물이 나고, 또 웃긴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을 만드는 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음악이 관객의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음악의 힘이자, 창극만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낍니다.

**<귀토>는 오늘의 관객에게 어떤
이야기로 다가갈지 바라시나요?**

요즈음은 건디기보다는 금세 떠날 준비를 하는 시대 같아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궁금하고, 다급하고 초조하게 곧장 다음으로 넘어가곤 하지요. 직장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 거라 기대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떠난 곳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귀토>는 토끼가 겪는 ‘팔란(八難)’, 곧 삶에서 마주하는 숏한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교훈을 앞세우는 작품은 아닙니다. 다만 공연을 보고 나서 ‘내가 지금 디딘 이곳에서 춤을 추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원작에는 없는 인물을 더하며 <수궁가>를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고전을 오늘의 무대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공연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의 관객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지,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릴 명분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궁가>는 발상 자체가 놀라운 작품입니다. 토끼를 물속으로 데려간다는 상상에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창의성을 느낄 수 있지요. 다만 오늘의 무대에서는 토끼가 꾀를 부려 용궁을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귀토>는 토끼가 다시 물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고전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오늘의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미를 확장하고, 지금 우리의 삶과 맞닿게 해야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공을 들인 연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창극은 종합예술입니다. 귀로만 듣는 공연이 아니라 눈으로도 함께 즐기는 무대이지요. 음악의 흐름과 감정의 기복은 물론 무대와 영상까지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닥과 전면에 영상을 활용하고, 아날로그적인 무대장치도 더했습니다. 달항아리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은 짧지만 오래 남는 여운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관객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덜어낼 대목과 보강할 대목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공연 곳곳에 짧지만 오래 기억될 잔상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연극 연출가와 예술감독 등 다양한 역할을 오가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련의 경험들이 작품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모든 사람은 다양한 역할을 오가며 살아가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험이 제 작품에 녹아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환경에서 작업하며 겪는 일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축적되고, 다음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그 모든 시간과 감정이 결국 지금의 저와 제 작품을 만든 셈입니다.

마방진 20주년을 지나 또 다른 출발선에 서셨습니다. 지금 연출가님이 가장 골몰하는 화두는 무엇인가요?

20년 전 극단을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제작 환경이 크게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0년 동안 분명 많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연극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후배들에게 극단을 잘 이어주고 싶지만, 이들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늘 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사람의 향기를 가장 진하게 품은 장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가 빠르게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도, 무대 위에서 배우와 관객이 같은 시간을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경험은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고, 또 오래 살아남을 거라 믿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객에게 꼭 극장에 와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선택이니까요. 다만 좋은 공연을 만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심장이 다시 뛰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울림은 마음 속에 오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삶을 움직이게 하는 자극이 되어 줍니다.

**하반기에는 <귀토> 외에 어떤
작품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 하반기에는 <투신>과 <찾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신>은 한 사람이 건물에서 투신했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는 설정에서 출발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적하며 오늘의 사회를 비추는 작품입니다. <찾집>은 5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찾집을 운영해온 사람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AI와 로봇이 산업혁명처럼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인간의 노동과 예술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은유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AI가 화두가 된 세상에서 저 역시 기술의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있지만 AI는 끊임 없이 진화하며 아무런 동요 없이 인간을 돕지요. 앞으로 어디까지 변화할지 기대하는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예술이 던져야 할 질문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에서 <귀토>를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립창극단 배우와 스태프 모두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다들었습니다.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잘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신명 나는 장단과 소리, 그리고 웃음과 여운이 함께하는 <귀토>를 화성에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창극단 <귀토-토끼의 팔란>

일시 2026.08.21.(금) 19:30 / 08.22.(토) 15:00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행복석) 1만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문의 1588-5234



사라져가는 풍경 속, 투명한 유리로 새겨낸 삶의 문장들

화성예술지원 선정자 용하현 작가

도시의 재구조화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공간들. 그 안에 남겨진 장소와 주민의
기억을 붙잡아 아카이빙하는 예술가가 있다. 회화, 사진, 설치를 넘어 유리까지, 다양한 매체로
시간의 흔적을 구조화하는 작업. 용하현 작가는 평범한 '사람 사는 이야기'에 가치를 둔다.

오는 9월, 또 한 번 시공간을 탐색하는 몰입형 전시를 앞둔 그를 만났다.

글 백미희(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작가님과 화성이라는 도시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화성은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님이 사시던 곳으로, 변화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 작업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공장 단지와 도로가 들어선 안녕동이 과거에는 ‘안녕리’라 불리던 시골 마을이었죠. 동네 입구에는 정승이 서 있었고, 비포장도로 위로 젖소들이 다니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급격한 재구조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사라지는 공간과 그 안에 남은 주민들의 서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 매체인 ‘유리’는 참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투명한 유리’
자체의 물성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리는 투명하지만 쉽게 변치 않는 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투명함에 집중하는 이유는 장소가 지닌 ‘기억의 주관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옛 간판이나 공간은 모두 누군가의 기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추억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쓸쓸한 기억일 수도 있듯 감정의 색깔은 저마다 다릅니다. 만약 작품에 특정 색을 고정해버리면 관람객에게 직관적이고 한정된 상상만을 제시하게 됩니다. 반면 색을 비워둔 투명한 유리는, 작품 너머를 바라보며 각자의 기억과 감정의 색을 자유롭게 투영할 수 있는 여백과 확장성을 만들어줍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소스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
구체적인 작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구역이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소를 찾아가 아카이빙과 리서치를 진행합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이 담긴 간판을 촬영하고 수집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이미지를 작업 크기에 맞게 편집·출력해 커팅하고, 유리는 작품 크기에 맞게 재단해 가마에서 구워냅니다. 여기에 현장에서 수집한 문틀이나 창틀을 수선해 결합하면서 하나의 작업으로 완성해 나갑니다.

**유리를 중심으로
작업하시면서도 매체를
유연하게 확장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향하시는
작업의 정체성이 궁금합니다.**

저는 유리를 깊이 다루고 있지만, 스스로를 특정 장르에 가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주제와 서사’이며, 매체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의 본질은 도시 재구조화 속에서 사라지는 공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겹겹이 쌓인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유리뿐 아니라 드로잉,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나누기보다,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울산, 전주 등 전국의 여러 지역을 오가며 아카이빙 작업을 이어오셨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견한 고유한 정서나 시대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발로 뛰며 흔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얽힌 인상 깊은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는 9월에 개최될 신작 전시 <어제가 그려낸 문장>(가제)은 어떤 연출로 꾸며질 예정인가요?

크게 보면 모든 지역이 ‘사람 냄새 나는 동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결은 서로 다릅니다. 바닷가 바로 앞이었던 울산 장생포에서는 플라스틱에 밀려 사라져가는 옛 ‘나무 어상자’를 수집해 작업에 활용했습니다. 그곳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우네’ 같은 고래고기 관련 단어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죠. 반면 곡창지대였던 전주는 넓은 들판과 활기찬 시장의 정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도심을 걷다 보면 다방, 이발소, 수선집, 비디오방 같은 아날로그 감성의 간판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파편들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본격 리서치 현장이었던 화성 우정읍의 ‘선창포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바다가 사라지고 들판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이 어시장을 지키고 계신 묘한 장소였죠. 과거에는 제부도보다 훨씬 큰 장이 열렸던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너무 적막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상인분들을 인터뷰하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요.

개인전 이후에는 그 공간에서 주민분들께 작품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 어시장 옆 유휴 공간을 빌려 2024년에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시 공간이 아니다 보니 하루 종일 혼자 자리를 지켜야 했는데, 이모들이 지나다니며 꽃게, 사탕, 대추, 젓갈 등을 끊임없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마음과 풍경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수집해 온 문틀이나 창문틀, 그리고 유리 작업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거대한 ‘몰입형 공간’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문틀과 창틀은 본래 ‘그 너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이를 벽에 걸거나 파티션처럼 전시장 내부에 세워 관람객들이 공간을 이동하며 투명한 유리 너머의 풍경을 탐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빛과 그림자를 세밀하게 제어하여 작품의 형상이 바닥과 벽면에 은은하게 비치도록 연출하려 합니다. 관람객이 그림자를 이정표 삼아 공간을 읽어나가는 공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번지고 흐르는 드로잉과 유리의 물성을 결합한 소품 형태의 새로운 표현 연구도 시도해 보는 중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화성예술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지원을
받아오셨습니다. 이러한 공공
지원이 작업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신진 작가에게 공공 지원은 창작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기반이 됩니다. 특히 유리를 주 매체로 사용하는 제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유리는 가마 크기에 따라 작업 규모가 제한되고, 물리적 제약이 많아 다루기 까다로운 데다 재료비 부담도 큼니다. 초기에는 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부담이 클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위한 실험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자신만의 기법과 작업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재단의 화성예술지원 프로그램은 그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재료와 방식을 시도할 수 있었고, 작업의 확장도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가마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전시 기회 역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원 덕분에 지난해에도 여러 신작을 제작하고 전시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취약 지역에도 예술을
전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지역 예술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서울과 일부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성만 보더라도 동탄이나 병점 중심에 문화시설이 몰려 있고, 서남부권의 농어촌이나 공장 지역은 여전히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렵죠. 작가들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도 이를 시민에게 보여줄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늘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술은 작가 개인의 성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만나고 호흡하며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희 공간을 찾아 전시를 시도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역 예술 지원이 단순한 창작 지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 문화적 경험을 확장하는 역할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일상 속 ‘인간 용하현’과 현장을 누비는 ‘작가 용하현’의 삶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조망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작가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사실 알고 보면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웃음). 일상 속 저는 지독할 정도로 게으른 ‘집순이’에 가깝습니다. 스케줄이 없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정해두고, 온종일 쉬면서 에너지를 비워내는 편입니다. 상당히 비계획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작가’로서의 페르소나가 작동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업에 들어가면 최대한 계획적으로 움직이려 하고, 현장 리서치에서는 높은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카메라와 스마트폰만 들고도 하루 종일 걸으며 공간을 기록합니다. 어쩌면 작업에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기 위해, 일상에서는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들어두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작업이 거창한 메시지로 세상을 대단하게 바꿀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우리 주변의 사소하고 평범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정성껏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제 작품을 마주한 관람객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만의 소중한 옛 기억과 향수를 따뜻하게 추억할 수 있다면 예술가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일 것 같습니다.

<어제가 그려낸 문장>(가제) 전시 정보

일시 2026. 9. 2.(수) ~ 9. 8.(화)

장소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5길 21 라크몽 B동 3층)



예술과 사람을 잇는 가교가 되다

1기 전시 자원봉사 도슨트
길현, 구나경, 김수정, 박영임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가교를 놓으며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 이들이 있다.
'2026 도슨트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올해 상반기 기획전시 현장에서 활약한 1기 자원봉사 도슨트들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부터 사진 예술 전문가, 영어 교육자이자 아나운서까지 저마다의 배경은 다르지만,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마음만큼은 하나로 통한다. 현장에서 관람객과 호흡하며 느꼈던
생생한 소회를 들어보았다.

정리 백미희(편집실) 사진 박시홍(싸우나스튜디오)



**1기 자원봉사 도슨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_ 길현 오랜 시간 미술을 접하며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예술가 요셉 보이스의 말처럼, 세상에 유의미한 행동을 하는 모두가 예술가라면,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의 심상을 자극하는 ‘활용적 예술가’로서 화성시의 문화적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_ 구나경 평소 전시를 즐겨 찾으며 많은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를 읽고, 미술관이 지닌 치유와 변화의 힘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마침 2025 화성특례시 시민 문화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전시의 맥락을 읽는 경험을 하면서,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서 여러 정보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도슨트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_ 김수정 어릴 적 미술을 공부했지만, 전공을 바꾸며 늘 아쉬움을 품고 지냈습니다. 10년간 육아에 전념하던 중 화성에 예술의 전당이 생긴다는 소식을 접했고, 내가 쓰임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마음먹던 차에 관련 공고를 접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_ 박영임 사진 예술을 전공하고 강사로 활동하며 ‘예술을 읽어내는 힘’에 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23년 화성에서 열린 매그넘 전시를 관람했을 때, 훌륭한 작품을 깊이 있게 전달해 줄 도슨트의 부재가 아쉬웠습니다. 내가 가진 소통의 경험을 공공 전시 현장으로 확장해 화성시 문화 예술에 기여하고자, 기다려온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각자 걸어오신 고유한 배경과
경력이 전시장 현장에서 해설을
진행하는 데 어떤 밑거름이
되었나요?**

_ 길현 오랜 시간 교육계에 종사하며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관객 앞에 서는 것이 크게 낯설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상의 특성에 맞춰 설명 방식과 어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관람객의 깊은 감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_ 구나경 경기교육 인터넷방송 아나운서와 교통방송 시민 MC 등으로 활동하며 마이크를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육아 공백 이후 도슨트로서 다시 전시장 안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마치 나만의 ‘열린 음악회’를 진행하는 듯한 전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_ 김수정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접했고,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복잡한 미술 이론도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었고,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_ 박영임 10년 이상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에서 시민 대상 사진 교실을 운영하며, 사진 이론이나 카메라를 처음 접하는 대중과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노하우가 쌓였고, 이것이 도슨트 활동에서 저만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마주하며 해설하셨을 때 가장
보람찼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_ 길현 도슨트 활동을 하며 이 시간이 관람객과 교감하는 순간임을 점차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배경을 바탕으로 주저 없이 자신만의 감상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_ 구나경 관람객이 예술에 깊이 몰입하는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미디어 아트 전시 당시 “공간 속 빈백에 누워 눈을 감고 작품과 하나 되는 감각을 느껴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실제로 깊이 몰입해 머무르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_ 김수정 도슨트는 단순히 작품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자와 작가, 관람객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해설 중 관람객들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공감하거나, 진지하게 질문을 주고받는 순간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큰 보람을 느낍니다.

_ 박영임 동탄에서 열린 《Face:문인전》에서 초등학생 단체 관람을 진행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서로 답을 맞추려 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형화된 스크립트를 암기하는 것보다, 관람객의 관점에 맞춰 함께 소통하는 것이 전시를 제대로 즐기게 하는 본질적인 방식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동료 도슨트
선생님들과의 교류도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리허설이나 스터디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_ 구나경 처음에는 도슨트가 혼자 공부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스터디와 리허설을 함께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_ 김수정 리허설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고, 동료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_ 길현 동료들의 리허설을 보고 있으면 깊이 있는 인문학 강의를 연속으로 듣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각자의 지적 깊이와 열정,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자극과 감동을 얻고 있습니다.



**‘도슨트 양성과정’에 참여하기
전과 후,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김수정** 서양 미술사와 현대미술, 아나운서 스피치 등 다양한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배움의 폭이 한층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제 도슨트 연습을 옆에서 들던 아이가 일상 속 사물을 보며 작가의 이름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의 변화가 가족에게도 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 **길현** 양성과정을 통해 전시 기획과 큐레이션의 과정을 심도 있게 배우며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 단순한 관람객이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기획자의 의도와 작가의 세계를 더 넓고 깊게 바라보게 되었고, 해설에서도 정형화된 설명보다 관람객과 작가를 충실히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임** 이전에는 완성된 스크립트를 외우고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도슨트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현장을 경험하며, 관람객의 감성과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진정한 역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관람객의 관점에 맞춰 유연하게 교감하는 여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각자 일상과 도슨트의 삶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 **길현** 현재는 언어적 소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육자이자 번역가, 평론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삶의 끝까지 이어질 ‘분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슨트를 비롯해 학교 운영협의회 회장 등 다양한 ‘분개’를 경험하며,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점차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 **구나경** 저의 분개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도슨트와 그림책 놀이 활동가,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 팀 리더 등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또한 그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성 아트 WAVE 시리즈 I 《Lux Flux 렉스 플렉스》신현정

마지막으로 전시 도슨트
양성과정에 관심 있는 화성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수정**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엄마로서의 일상이 도슨트라는 ‘부캐’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도슨트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얻는 자아 확장은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으며, 두 페르소나는 서로에게 선순환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 **박영임** 저는 사진작가이자 강사라는 페르소나와 도슨트라는 페르소나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간을 관찰하며, 타인의 작품을 해석하고 공명하는 본질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 **길현**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예술적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그려가는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어린 시절 도화지 앞에 섰던 설렘과 순수한 애정을 떠올린다면, 화성시가 마련한 훌륭한 기회를 통해 마음속 예술을 주저 없이 꺼내어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구나경** 동탄 아트스퀘어에 전시 중인 양혜진 작가님의 작품을, 보며 어둠 속 동굴 안에서 머뭇거리다 빛을 찾아 걸어 나가는 여정이 떠오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과감히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고 화성의 아름다운 문화 예술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김수정** 비전공자라도 배움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정입니다. 길을 먼저 닦아온 1기 도슨트들이 곁에서 기꺼이 돕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슨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쁨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박영임** 미술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만 도슨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역시 현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소통하며 시민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보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나경



박영임



길현



김수정

* 제2기 도슨트 모집은 2027년 1분기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시기획팀(031-290-461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 해금을 더해, 일상의 행복을 커다

화성특례시 생활문화동호회 '해금더하기'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악기 연주에 마음을 빼앗겨 발걸음을 멈춰 본 적이 있는가.

단 두 줄의 현으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악기. 맑고도 애절한 음색으로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희망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해금의 특별한 매력에

매료된 이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소리에 이끌렸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에 해금을 더해 일상의 행복을 커 내려가는 사람들, 바로 '해금더하기'다.

글 백미희(편집실) 사진 김경수(싸우나스튜디오)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완성되는 음악

해금더하기는 지난 2022년 10월, 해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배우면 더 즐겁고, 함께 연주하면 더 큰 감동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영순 대표는 해금을 취미로 배운 지 어느덧 10여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이다. 오랜 시간 개인 레슨과 그룹 수업을 병행해왔던 그는 늘 마음 한구석에 ‘함께 어우러져 연주할 수 있는 모임’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혼자 하는 연주보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연주할 때 악기 켜는 재미가 배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격적인 동호회 결성을 추진했다. 국악기 중에서도 해금은 보통 1년 정도 꾸준히 혼자 켜는 법을 익히면 합주가 가능해지는 악기다. 마침 온라인 카페 등에서 함께 연주할 동호회를 찾고 있던 1~2년 차 안팎의 회원들이 이영순 대표의 뜻에 공감하며 하나둘 합류하게 되었다.

혼자 연습할 때는 금방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막막함이 따르기도 했지만 한데 모여 연주를 맞춰 보니, 서로의 소리를 섞어 가며 비로소 합주가 주는 더 큰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되었다. 서로 배우고 격려하며 실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동호회는 단순한 취미 모임을 넘어 음악으로 성장하고 소통하는 든든한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현재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8명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대부분 가정을 돌보는 주부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어린이집 교사, 상담 치료사로 활동하는 회원도 있어 모두가 함께할 시간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다. 주말은 종교 활동과 가족 일정으로 비워두기 어려웠고, 연습 공간 대여 시간까지 고려해야 했다. 고민 끝에 찾아낸 해답은 ‘수요일 점심 시간’. 오후 출근하는 회원까지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 시간이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연습실에 모이는 이 시간은 회원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다. 일상의 피로를 내려놓고 음악에 온전히 몰입하는, 가장 완벽한 쉼이자 해방의 시간이다.





기교보다 호흡, 오래가는 동호회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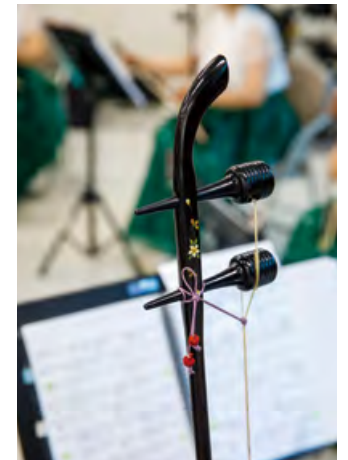
국악과 민요는 물론 대중가요와 영화음악, 클래식까지 해금더하기가 소화하는 음악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해금 관련 카페를 통해 편곡 악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접근성도 한층 좋아졌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이 연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화려한 기교가 아니다. 바로 ‘함께 호흡하는 마음’이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넘어선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 중 해금 전공자가 있다는 점은 동호회의 큰 강점이다. 음악적 중심을 잡아주는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레슨을 진행하며 회원들의 성장을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덕분에 경제적 부담은 낮추면서도, 연주의 깊이와 완성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한 달로 치면 고작 6시간 남짓한 짧은 만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비결은, 전공자 동료의 세심한 조성과 더불어 회원들이 각자 집에서 치열하게 개인 연습을 이어오며 ‘합을 맞추는 시간’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해금더하기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운영 방식도 한몫한다. 회원들은 한 달 5만원이라는 회비만으로 장소 대여, 강사료, 간식비는 물론 주차비까지 해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 출신으로 행정 업무에 밝은 이영순 대표가 직접 발로 뛰어 다양한 지자체 지원 정보를 모으고 있다. 가정이 있는 주부들이 매달 큰 비용을 지출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을 배려해 운영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 것이다.

여기에 회원들의 재능 활용과 끈끈한 역할 분담이 더해지며 동호회의 내실은 더욱 단단해졌다. 의상을 전공한 회원은 직접 동대문 시장에서 발품을 팔아 회원들의 무대의상 맞춤 제작을 돕고, 기획에 능한 회원은 배너와 명함을 직접 디자인했다. 매주 간식과 스케줄을 꼼꼼히 챙기는 총무의 존재까지 더해지니, 동호회는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누군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저마다 동호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즐겁게 맡은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빚어내는 하모니는 더욱 아름답고 의미가 크다.





연주를 넘어 삶으로, 해금이 만든 변화

해금더하기는 요양원, 주민센터 음악회 등 문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정기적인 재능 기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 음악 축제와 지역 축제 오프닝 무대, 경로잔치까지 접수하며 관객들과 따뜻하게 호흡했다.

특히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서의 찾아가는 공연은 회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람을 안겨준다. 거동이 불편해 평소 문화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은 해금더하기의 연주가 끝나면 거침없이 다가와 연주자들의 손을 덥석 잡으시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곤 한다.

“어른이 되고 나면 누군가에게 순수한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들을 기회가 참 드물잖아요. 그런데 저희 연주를 들으시고는 너무 잘 들었다고, 먼 길 와주어 정말 고맙다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실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동과 보람이 밀려와요. 연주를 듣고 흥겹게 어깨춤을 추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해주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저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해금더하기는 언제나 새로운 회원에게 열려 있다. 해금은 독주보다 여러 대의 악기가 모여 소리를 쌓을 때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다만 정기 연습 시간이 수요일 점심시간대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 함께할 회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영순 대표는 “수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해금을 연주하며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이려면 언제든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달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만약 당장 동호회에 가입하기는 어렵지만 해금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는 입문자라면, 그가 전하는 몇 가지 팁에 주목해 보자. 우선 고가의 악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한 달에 3~4만 원 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악기 대여 서비스를 추천한다. 또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를 매칭해 주고 강사료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배달강좌’ 시스템을 찾아보는 것도 초보자가 배움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악기를 배우다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해금은 보통 1년 정도 꾸준히 실력을 키우면 누구나 아름다운 합주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에요. 혼자만의 연습을 넘어 여럿이 함께하는 풍성한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면 언제든 이곳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해금더하기는 실력보다는 함께 배우고 즐기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웃음과 음악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금 연주 동호회 ‘해금더하기’

활동기간 2022년 10월~

회원구성 30대~60대 여성

가입문의 010-9600-4280(이영순 대표) /

인스타그램 @yoonshaeguем(송윤주 해금강사)

다채로운 왕 정조, 화성에 지극한 효심을 남기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명함을 갖고 산다.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주말에는 인플루언서나 운동선수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른바 자신만의 부캐를 가진 이들이 일상화된 시대.
그런데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200여 년 전 몸소 실천한 인물이 있다.
바로 일국의 최고 통치자이자 다채로운 면모를 지녔던 왕, '정조'다.

글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국왕이라는

책임 뒤에 숨겨진 명함

조선에서 국왕이라는 자리는 한 인간의 어깨를 짓누르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다. 정조는 이 무거운 일상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부캐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그의 첫 번째 부캐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압도한 ‘석학’이었다.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경연 자리에서 오히려 신하들을 가르치며 “공부 좀 하라”라고 호통을 친 일화는 유명하다. 두 번째 부캐는 밤마다 밀실에서 움직인 ‘막후 정치가’였다. 정조는 낮에는 조정에서 자신과 격렬하게 대립하던 노론 벽파의 영수 심환지에게 밤마다 비밀 편지를 보냈다. “이 시기에 네가 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라”, “이 비판에는 내가 이렇게 맞받아치겠다”고 하며 정국을 막후에서 조율한 고도의 소통가였다.

그의 손은 붓만 쥐지 않았다. 세 번째 부캐는 백발백중의 명궁인 ‘무인’이었다. 정조는 활을 쏘면 50발 중 49발을 명중시킨 뒤, 마지막 한 발은 일부러 허공으로 날려 보냈다. 능력이 가득 차 넘치는 것을 경계한다는 군자의 도리 때문이었다. 마지막 부캐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던 ‘판관’이었다. 왕의 행차 때 쾡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이 있을 경우, 가던 길을 멈추고 직접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죄수가 없게 하라”며 재위 기간 동안 무려 1,112건의 재판 기록을 일일이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화려한 명함을 가진 정조였지만, 사실 그 뒤에 꼭꼭 숨겨두었던 부캐가 하나 더 존재했다. 앞서 소개한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시대를 앞서간 미적 안목을 지녔던 ‘디자이너’가 그것이다.

디자이너 정조로서의 면모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단연 수원화성의 건설 현장이었다. 성을 쌓을 당시 일부 신하들은 “성이 튼튼하면 됐지, 굳이 꾸밀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조는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적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아름다운 성은 지키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곳을 스스로 아끼게 만든다는 깊은 통찰이었다.

정조는 미적 기능과 실용적 방어 능력을 조화시킨 품격 있는 디자인을 추구했다. 그의 문집 《홍재전서》에는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난다. 정조는 좋은 역사책을 좋은 그림에 비유하며 “귀나 눈이 아무리 닳았더라도 뽀뽀 위 ‘세 가닥의 수염(三鬚)’까지 정교하게 그려야 인물이 살아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작은 디테일에 집중하는 안목, 이른바 ‘세 가닥 수염’의 철학이다. 실제로 정조는 건축 설계에서 불필요한 사치를 배제하고, 견고하면서도 소박한 맛을 살렸다. 또한 공사에 참여한 석수와 미장이 등 장인의 이름을 돌에 새기는 실명제를 도입했다. 디테일을 중시하는 섬세한 디자인 경영의 표본이었다.





다채로운 모습 속, 가장 큰 울림으로 남은 ‘효심’

학자, 정치가, 무인, 판관, 그리고 시대를 앞선 디자이너까지. 정조는 실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명함들을 지탱하게 한 정조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 그 중심에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효심’이 있었다.

정조에게 생부의 비극적인 죽음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과제였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손꼽히던 화산(花山, 현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으로 묘소를 옮기고 이를 ‘현릉원(顯隆園, 훗날의 용릉)’이라 명명했다.

이 공간에는 정조의 효심과 예술적 안목이 집약되어 있다. 현릉원 건설 기록이 상세히 담긴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보면, 정조가 이 공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설계했는지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조선 왕릉의 연못은 보통 네모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틀에 박힌 형식을 벗어나 이곳에 둥근 형태의 원형 연못을 디자인했다. 현릉원이 자리한 화산의 형세가 풍수지리상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이었기에, 정조는 묘소 바로 앞에 둥근 연못을 파서 ‘여의주’이자 ‘용의 눈동자’를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병풍석에는 일반 세자 묘에서 보기 어려운 모란과 연꽃 문양을 정교하게 새기도록 했다. 격식을 넘어서서라도 아버지를 예우하고자 한 의지가 드러난다.

상처를 미래로 바꾸는 리더십, ‘사중지공’

아무리 아름다운 설계라도 백성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면 온전한 성과라 할 수 없다. 정조의 업적이 빛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애민정신에 있다.

사실 현릉원을 화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원래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수많은 백성과 관공서를 이전시켜야만 했다. 기득권 신하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살 것이라며 대규모 이주 사업을 반대했다.

그러나 정조는 강압 대신 상생을 택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조는 합리적인 이주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이주하는 민가에 넉넉한 보상금을 쥐여주고 집 지을 재료를 나누어 주었으며, 수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백성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장사를 하며 먹고살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해 주고 자금까지 지원했다. 그 결과, 큰 갈등 없이 이주가 완료되었고, 오히려 백성들은 “임금의 효심 덕분에 우리 삶이 더 넉넉해졌다”며 정조의 행차를 환영했다. 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사중지공(私中之公, 사적인 마음 안에 공적인 마음이 있다)’이 있었다. 아버지를 향한 사적인 슬픔과 효심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눈물로 끝내지 않았다. 치밀한 행정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백성들이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일구어냄으로써, 사적인 동기를 위대한 공적인 성과로 승화시킨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 화성에서 꽃피우다

사적인 효심에서 출발했으나 끝내 공적인 번영을 이루어 낸 정조의 가치관은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라는 도시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릉원은 현재 ‘웅건릉’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웅건릉은 한 울타리 안에 나란히 이웃한 아버지와 아들의 무덤을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즉, 앞서 소개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무덤인 ‘용릉(隆陵)’과,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정조대왕과 그의 부인 효의 왕후가 잠든 무덤인 ‘건릉(健陵)’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동등한 높이의 서로 다른 언덕에 부자(父子)의 묘가 나란히 놓인 이 독특한 배치는 정조의 유언에서 비롯되었다. 임종을 앞둔 정조는 죽어서도 아버지가 누워 계신 산자락 옆에 묻히기를 자처했다. 살아서 다 하지 못한 효를 사후에라도 나란히 누워 이어나가고자 했던 정조의 마지막 바람이었던 셈이다.

오는 10월, 화성시에서는 정조의 이러한 정신과 효심을 기리는 대규모 ‘정조효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가 열린다. 특히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곳 화산으로 모시던 역사적 여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현릉원 천원(遷園) 재현’은, 정조가 백성들과 함께 그렸던 효와 상생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땀뻑한 조직의 틀 속에서 저마다의 또 다른 명함을 품고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정조의 삶은 좋은 이정표가 된다. 쳇바퀴 같은 일상에 지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 가을에는 정조의 깊은 안목과 숨결이 깃든 화성시 웅건릉의 숲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솔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조가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정조의 깊은 효심을 만날 수 있는 10월 축제

화성효행잔치

일시 2026. 10. 3.(토) ~ 10. 4.(일) 2일간

장소 정조효공원 웅·건릉

주요 프로그램

- 현릉원 천원 재현
- 드론라이트쇼 및 공연
- 효행상 시상식
- 체험 프로그램 등

2026 정조대왕능행차

일시 2026. 10. 4.(일)

장소 1구간: 동탄 센트럴파크 - 현충공원

2구간: 황계동 - 현충공원

3구간: 현충공원 - 정조효공원

주요 프로그램

- 정조대왕 능행차 전통행렬 재현
- 출행식, 격쟁, 화성유수 정조맛이 퍼포먼스
- 산릉제례 어가행렬, 현릉원 제향



또 다른 내가 전하는 응원

글·그림 언넬브(@un.nerve)

우리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직장에서는 회사원, 집에서는 가족, 누군가에겐 친구.
그리고 때론 그 어떤 모습보다 더 깊이 몰두하는,
자신만의 또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3년 전쯤, 남동생과 나는 함께 스쿼시를 배웠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손목 통증 때문에 그만두었지만,
동생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스쿼시를 하고 있다.
회사원인 동생이 퇴근 후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을 떠올리면
여느 직장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집이 아닌 스쿼시장으로 향하는 저녁,
마우스가 아닌 라켓을 쥐는 순간 동생의 하루는 다시 시작된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동생은 주말에는 공식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스쿼시에 진심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문득 궁금해진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에너지를 쏟고도,
또 다른 땀을 흘리러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Lv.3 스쿼시 진심맨



Lv.5 뜨개질 마스터

동생은 스쿼시를 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쌓여 있던 불안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잠시 벤치 위에 내려놓은 뒤 코트 안으로 들어간다.
신경써야 하는 것은 벽에 부딪혀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작은 공 하나뿐.

낮 시간 내내 의자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던 회사원은 없고,
발꿈치가 땅에 붙어있을 새 없이 분주한 선수만이 남아있다.
동생은 스쿼시를 시작한 뒤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자랑했지만,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음가짐인 듯 보였다.
“스쿼시는 나의 일부야.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
그런 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기꺼이 땀을 흘리러 가는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정체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흔히 본캐(본업)가 중요하고 부캐(취미)는 덤이라 말한다.
안정감이 있어야 여유도 즐길 수 있기에 본업이 우선이라고 여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동생을 보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본캐를 버티게 하는 힘은, 어쩌면 부캐에게서 오는 게 아닐까?

살다보면 종종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찾아온다.
 애써 준비한 일이 허무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별것 아닌 한마디에 자신감이 무너지기도 한다.
 자신이 그저 회사의 작디작은 부품처럼 느껴지는 날.
 만약 자신을 회사원이라는 역할 하나로만 바라본다면,
 그런 하루는 곧 나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실수한 날에도,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울고 싶은 날에도,
 코트 안에서는 여전히 공을 쫓아 달릴 수 있었다.
 회사원으로서의 하루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스쿼시를 하는 자신까지 함께 흔들리지는 않았다.

나 역시 요즘 밤마다 트랙을 가볍게 뛰고 있다.
 그저 하루 동안 복잡해진 생각들을 정리하고,
 가라앉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띄우기 위해 시작한 뒀이었다.
 하지만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이상하게도 하루가 조금 가벼워졌다.

생각해 보면 동생이 스쿼시를 계속 하는 이유도,
 내가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도 비슷한 것 같다.
 하루가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도, 좋아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되니까.

어쩌면 부캐란 지친 마음을 잠시 기대어 둘 버팀목 같은 곳이 아닐까.
 마우스를 내려놓고 라켓을 쥔 동생처럼,
 나 또한 오늘도 러닝화를 고쳐 신는다.



여름밤의 오케스트라, 클래식이 영화의 숨결을 탐닉할 때

화성시 예술단 기획공연
콘서트 라운지 II : Cinema & Classic

글 화성시 예술단 관객평론단 백승권



인간이 빚어낸 거대한 경이

인류가 만든 대다수는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다. 음악은 예외다. 인류 같은 하찮고 저급한 존재가 음악이라는 세계를 이렇게 확장시키다니. 개인과 집단, 역사와 문화, 감정과 기억, 감각과 몰입, 물리적 기술, 공예적 디자인을 집대성한 초월적 예술 장르를 이토록 접근성 높이고도 거대한 규모로 키워내다니. 감상자이자 소비자라는 낮은 의자에 앉아서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얼얼떨떨함은 새로운 시각과 청각을 틔우는 경이의 영역에 이른다. 6월 13일 19시에 막을 올린 화성시 예술단 기획공연, <콘서트 라운지 II : Cinema & Classic>의 이야기다.

울림이 가라앉을 틈이 없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드뷔시의 달빛, 로시니의 오페라 '도독까지' 서곡, 해리포터 - 헤드위그 테마 (작곡: 존 윌리엄스), 레 미제라블 셀렉션 (작곡: 클로드-미셸 쇤베르크), 마녀 배달부 키키 - 바다가 보이는 마을 (작곡: 히사이시 조), 포레스트 검프 Suite (작곡: 앨런 실베스트리), 인디애나 존스 - Raiders March (작곡: 존 윌리엄스), 기쿠지로의 여름 - Summer (작곡: 히사이시 조), 캐리비안의 해적 - He's a Pirate (작곡: 클라우스 바덜트), 이웃집 토토로 (작곡: 히사이시 조)까지 휘몰아친다. 동탄 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120분 동안 1, 2, 3부에 걸친 공연 내내 턱을 갇 채 무대를 응시하며 가장 멀리선 연주자부터 가장 크게 보이는 지휘자(예술감독&지휘: 임동국)까지 각막과 고막에 고이 넣어두었다.

어둠 속의 관객과 빛나는 무대

혼연일체. 말은 쉽지만 야외공연에서는 아니다. 객석에 앉은 감상자로서 누리는 고요한 쾌감과 무대 위 퍼포머들의 입장은 완전한 융화의 지점에 이르는 불가능하다. 추상의 영역일 뿐. 지휘자의 단상과 단원들 사이를 높이, 각도, 간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술가와 예술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화학작용이 공연의 전부를 정의한다. 감상자는 눈빛과 집중으로 지그시 반응을 건넌 뿐이다. 반면에 연주자는 모든 것을 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조명이 켜지기 전부터 꺼진 후까지, 각자의 악기를 쥐기 위해 앉은 자세를 다듬고 각자의 악기를 들고 들어왔던 통로로 무대를 나갈 때까지, 긴장된 표정부터 짧은 웃음까지, 악보를 넘기는 모든 순간순간,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부터 다른 차례가 지나갈 때까지, 지휘자가 공연을 안내하고 곡을 소개하고 각 단원들을 소개하고 호응을 이끌어내고 마지막 단원이 나갈 때까지, 무대를 지키는 장면까지... 연주자가 감상자들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관객들은 무대 위의 모든 공기와 먼지, 움직임과 불빛, 음영과 삐걱거림, 찰나와 눈썹의 싹둑거림까지 놓치지 않는다. 연주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관객의 눈망울과 표정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된다.





음악은 자립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과 인간은 함께 한 시간을 통해 음악이라는 예술을 입체적 경험으로 쌓아 올린다. 연주자 이름을 모르고 지휘자의 이력을 모르며 악기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익숙한 선율의 작곡가와 영화 장면이 흐릿해도 상관 없다. 끝내고 싶지 않은 긴장감이 연주자들의 악기와 감상자들의 눈빛 사이를 가득 채운다. 눈을 감지 않아도 콘크리트 무대와 수풀 사이의 모 구성원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역사의 일부가 된다. 시간이 지나 잊히더라도 느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은 다음 역사가 될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여름밤의 기록

어둑해진 밤공기와 아랑곳하지 않는 조명 사이 지휘자와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움직임이 한 폭의 풍량처럼 나뉘고 있었다. 거대한 물결처럼 뒤덮으며 몸을 적시는 선율들에 심취하다 보니 일상에 묶인 다른 생각들이 잠시 침투하기도 했다. 희석되고 표백되고 싶어서. 피로한 에피소드와 감정들이 저마다 얼룩진 팔다리를 내밀었다. 공연 초반부터 토드 필드 감독, 케이트 블란쳇 주연의 영화 <TAR 타르>를 떠올렸다. 명성과 심연, 범죄와 추락의 이미지들이 망막에 겹쳤다. 오늘 공연엔 없었지만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Adagietto)까지도. 경쾌했던 중반을 지나 후반부 이웃집 토도로에 이르렀을 때 착하게 살고 싶어졌다. 캐리비안의 해적 OST를 들으며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의 판화 같은 선율이지...' 하다가도 미야자키 하야오와 히사이시 조의 그물 같은 영향력에 잠시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의 픽셀, 음표, 또는 보면대 같은 삶.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개인 퍼포먼스 중 인상 깊은 장면은 큰 북이었다. 치는 장면이 아닌 치고 난 후 울림을 제어하기 위해 큰북의 뒷면을 잡던 장면. 자기 역할을 마치고 다른 악기의 등장에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 암묵적으로 합의된 배려, 영원히 울리는 소리는 없지만 멈출 줄 아는 소리는 곡 전체를 완전히 채운다. 크고 작은 모든 액션에는 정밀한 계산과 송고한 제어가 깃들여 있었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며 과정이 모두 끝나도 세부가 남긴 감촉은 각인된다. 하프, 바이올린,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트럼펫, 바순, 호른, 피아노, 심벌즈, 비브라폰, 비올라 그리고 큰북까지. 밤공기와 빛 사이에 엄정하게 세공된 보석처럼 박힌 선율들, 가장 개인적인 여름밤으로 기억될 것이다.

빌딩 숲을 적시는

푸른 물보라 아래

도시의 속도를 잊게 만드는
느긋한 오후

Walk

길 위에서 역사를 거닐고, 예술로 호흡하다

82

Travel

우리는 화성으로 피서간다

당일치기 여름 탈출 여행

92



길 위에서 역사를 거닐고, 예술로 호흡하다

어떤 여행은 단순히 공간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서사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번 화성 여행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조선의 왕이 걸었던 효(孝)의 길과 고즈넉한 산사의 밤,
그리고 신명 나는 전통 공연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졌다.
역사와 예술이 하나의 호흡으로 맞물린 여정 속에서,
우리는 화성이 품은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었다.

글 백미희(편집실) 사진 김경수(싸우나스튜디오)



숲길을 따라 이어지는 왕실의 서사

초여름 녹음이 짙게 내려앉은 오후, 여행자들이 향한 곳은 용건릉이었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융릉, 정조대왕과 효의왕후의 건릉이 나란히 자리한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조선 왕실의 ‘효(孝)’ 사상이 깃든 대표적 공간이다.

피톤치드 향이 감도는 숲길에서 시작된 도슨트 투어. 교과서적인 설명 대신, 왕실 장례 절차에 쓰인 석빙고 이야기와 궁중에서의 미역 활용 등 흥미로운 야사가 이어졌다.

“과연 왕의 마지막 길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해설사의 질문에 참가자들은 소풍 온 아이들처럼 활기차게 답을 내놓았다.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능침을 차례로 돌며 이어진 설명에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의 즐거움과 역사적 이해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순간이었다.

친한 지인의 추천으로 어머니와 함께 참여했다는 심혜연 씨 역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영화 <왕과 사신>을 보고 정조대왕에 관심이 생겼어요. 행궁동은 자주 찾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용건릉이 쌍릉이라는 사실이나 혜경궁 홍씨의 이야기까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의 말처럼, 이름만 알고 스쳐 지나가던 도시는 해설사의 목소리를 통해 입체적인 이야기로 되살아났고, 여행자들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각인되고 있었다.





손끝으로 엮는 효의 시간

용건릉이 품은 서사의 묵직한 감동을 채우고 이동한 다음 행선지는 용주사였다. 이곳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정성을 다해 세운 왕실 원찰이다. 왕릉을 수호하고 망자의 넋을 기리는 사찰인 만큼, 입구에 궁궐 양식의 홍살문이 서 있는 등 일반 사찰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건축 구조가 특징이다.

고즈넉한 산사에 들어선 참가자들은 먼저 템플스테이의 백미인 염주 만들기 체험에 나섰다. 가느다란 실에 작은 구슬 108개를 한 알 한 알 꿰어 나가는 과정은 보기와 달리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사락거리는 소리만 잔잔히 흐르는 방 안,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구슬을 실에 꿰어 나갔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나무의 온기는 복잡했던 일상의 소음과 잡념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정성스레 매듭을 지어 단 하나뿐인 염주를 만들어 목에 건이들의 얼굴에는 이내 뿌듯함이 차올랐다. 참가자 박영근 씨는 이번 화성 여행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으로 ‘종교적 체험’을 꼽았다.

“불교는 아니지만 평소에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행 카페를 운영할 정도로 수많은 국내외 여행 경험이 있지만 템플스테이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염주를 만드는 과정도 신기하고 내일 남양성 모성지 투어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어진 용주사 관람에서도 도슨트의 해설은 깊이를 더했다. 삼문과 천보루, 부모은중경탑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감탄이 흘렀다. 대웅보전 앞마당의 오층석탑과 범종각을 지나며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한층 차분해졌다. 산사의 고요한 공기와 청량한 바람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안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이 완성되고 있었다.



낮의 서사가 밤의 예술로 이어지다

저녁 공연을 마친 뒤, 일행은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로 향했다. 첫날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전통 연희 공연 <연희-판 '흥으로 잇는 세상'>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사물놀이, 탈춤, 사자춤, 줄타기 등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이 시작되자 사물놀이의 강렬한 장단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역동적이면서도 해학적인 사자춤이 무대를 누비자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아슬아슬하고 재치 넘치는 줄타기의 묘미가 펼쳐질 때는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여행자들은 어느새 화성이 가진 다채로운 문화적 에너지에 동화되고 있었다.

수많은 국내외 여행을 다녀왔지만 주로 자연을 즐기는 휴양 위주의 여행을 해왔다는 참가자 박영근 씨는 이번 화성 여행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저 이름만 막연히 알고 있던 화성이 이토록 깊은 문화예술적 콘텐츠와 역사적 의미를 풍성하게 품고 있는 도시라는 걸 깨닫게 되니, 도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절로 생겨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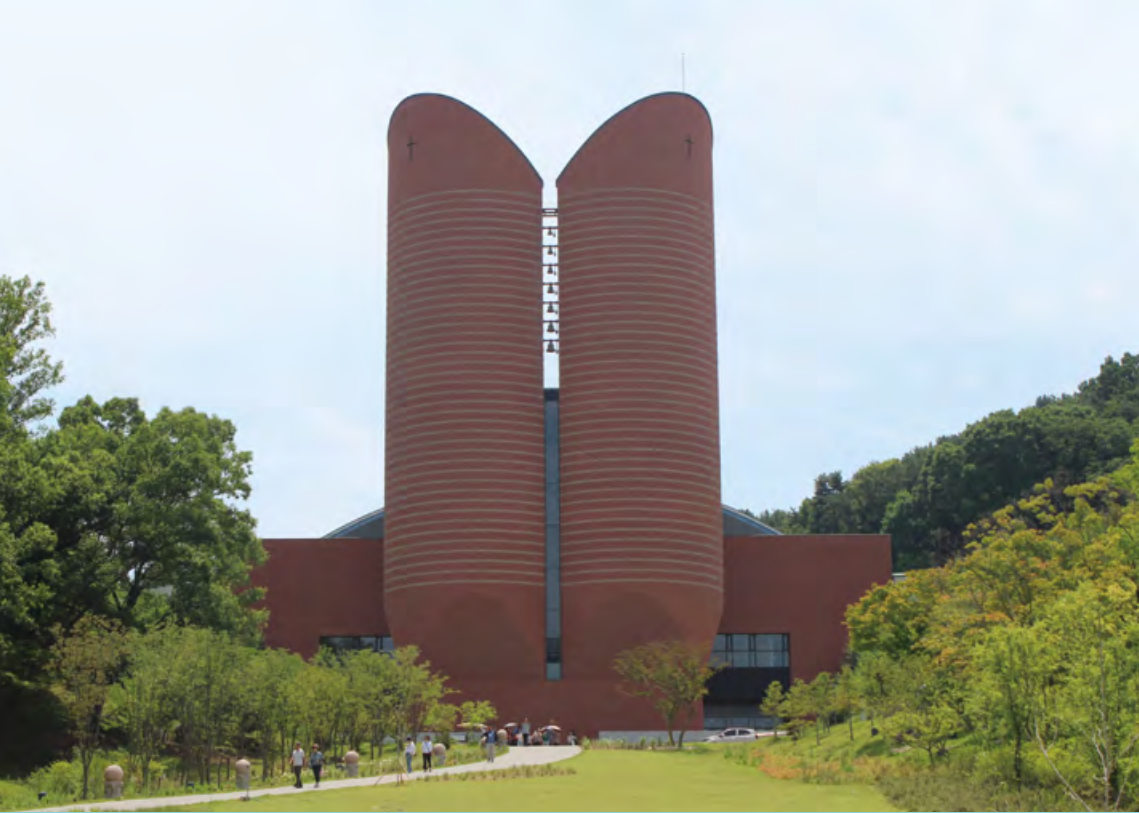
새벽 예불이 열어준 평화의 시간

공연의 열기가 잦아든 밤, 산사는 다시 깊은 고요로 돌아갔다. 참가자들은 다음 날 새벽 6시 10분에 진행될 아침 예불을 이번 일정의 또 다른 기대 요소로 꼽았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심혜연 씨 역시 “여행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때 같아요. 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사찰의 마당에서 새벽 산사가 주는 특유의 경건한 분위기와 차가운 공기를 어서 느껴보고 싶다”라며 기대감에 가득 차 눈을 반짝였다.

목탁 소리와 함께 시작된 이튿날 아침, 산사에서의 맑은 기운을 채운 여행자들은 오전 9시부터 전통생활 문화 수공예 체험에 참여했다. 손끝으로 직접 공예품을 만들며 화성 고유의 색채를 경험한 이들은, 템플스테이 퇴실을 마친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코스인 남양성모성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진제공 국립국악원



이곳은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성지로, 오늘날에는 대자연과 어우러진 평화와 치유의 기도 공간으로 가꾸어진 곳이다. 웅장한 자연 속에 자리한 성지 경내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장엄한 대성당과 고즈넉한 숲속 산책길을 걸으며, 여행자들은 1박 2일 동안 걸어온 여정의 벅찬 감동을 마음속에 조용히 매듭짓고 있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화성이라는 도시가 정말 좋아졌어요. 아기자기하면서도 깊이가 있네요. 조만간 남편과 단둘이 꼭 다시 방문해서 이 아름다운 길을 조금 더 여유롭게 거닐어볼 생각입니다.”

참가자 이경숙 씨의 다짐처럼, 화성의 길 위에서 시작된 여행자들의 발걸음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묵직한 여운을 남긴 채,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마무리되고 있었다.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1박 2일의 여정

용건릉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용릉, 정조대왕과 효의왕후의 건릉이 나란히 자리한 쌍릉

- 주소 경기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481번길 21
- 전화번호 031-222-0142
- 운영시간 09:30~18:30(월요일 휴무)
- 입장료 대인 1,000원 / 24세이하, 62세이상 무료

용주사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왕실 원찰

- 주소 경기 화성시 병점구 송산동 187-2
- 전화번호 031-234-0040
- 입장료 무료

화성예술의전당

1,45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1,2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갖춘 전문 공연장

- 주소 경기 화성시 노작로 11-1
- 전화번호 1551-2313
- 주요 시설 대공연장(동탄아트홀),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남양성모성지

세계적인 건축 거장 마리오보타가 설계한, 조선시대 순교자들을 기리는 천주교 성지

- 주소 경기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성지로 112
- 전화번호 031-356-5880

* 성지 미사시간 매일 오전 11시(월요일 제외)

우리는 화성으로 피서간다

당일치기 여름 탈출 여행

여름 띄약벌 아래에 서면 누구나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시원한 피서지를 꿈꾼다.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치기 일쑤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곳에 대형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완벽한 물놀이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 화성시에 위치한 물놀이 시설에서 보낸 완벽한 하루를 생생하게 담아왔다.

글·사진 여행작가 임운석



도심 속 오아시스, 동탄 패밀리풀 완벽 탐방기

동탄구 석우동에 위치한 ‘동탄 패밀리풀’은 상상을 현실로 바꾼 공간이다.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이곳은 철저한 정원 관리와 쾌적한 시설로 입소문을 타며 화성시민들의 여름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동탄 패밀리풀은 치열한 예약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회차별 수용 인원을 최대 850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100%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된다.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라는 저렴한 이용료 덕분에 예약 경쟁은 뜨겁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선택이다. 예약에 성공했다면 복장 규정에 맞는 수영복과 아쿠아슈즈, 그리고 캡모자나 수영모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먼티셔츠나 면바지 차림으로는 풀장에 입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놀이 당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1부를 이용하기 위해 서둘렀다. 자가용을 이용해 석우동 제3공영주차장에 들어서니 넓은 주차 공간이 반긴다. 최초 1시간 30분은 무료이며, 이후에도 요금이 저렴해 주차비 부담이 적다. 매표소에서 예약자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푸른 물빛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에두른 모습이 도심 속 오아시스처럼 낭만적이다. 이른 아침임에도 안전요원들이 구역마다 꼼꼼하게 배치되어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에서 신뢰감이 든다. 차양막이 설치된 평상 구역에 개인 돗자리를 펴고 짐을 풀었다. 선베드와 평상은 선착순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므로,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오전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정각 9시, 물놀이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과 함께 드디어 물속으로 뛰어들 차례다. 먼저 발을 들인 곳은 동탄 패밀리풀의 하이라이트인 ‘플로팅 리버풀(유수풀)’이다. 수심 약 0.8m로 조성된 이 구역은 튜브를 탄 채 흐르는 물살에 몸을 맡기면 그만이다. 현장에 있는 공기 주입기로 미리 부풀려 둔 도넛형 튜브에 몸을 싣자,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시원한 해방감이 밀려온다. 뒤이어 이동한 곳은 수심 0.87m 내외의 메인 풀인 ‘아쿠아풀’이다. 초등학교생부터 성인까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신장 120cm 미만의 어린이들은 수심 0.4m의 ‘유아 전용 풀’에서 안전요원들의 관심과 보호 아래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50분간 물놀이가 끝나자 10분간의 달콤한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 물 밖으로 나오자, 몸이 으스스해진다. 이때 향한 곳이 바로 ‘힐링 온수풀’이다. 수온 34도 내외를 유지하는 뜨끈한 온수풀에 몸을 담그자, 체온이 회복되고 일상의 피로마저 봄눈 녹듯 사라진다. 물놀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출출해진다. 동탄 패밀리풀 내부에는 외부 배달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원 안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메뉴는 수영장에서 빠질 수 없는 국물인 떡볶이, 순대, 어묵, 그리고 달콤한 츄러스까지 허기진 배를 달래기에 충분하다. 집에서 김밥이나 과일 등을 미리 준비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야 하고, 과일은 씨 없는 것으로 챙겨야 한다. 그늘막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이 시간만큼은 유명 휴양지가 부럽지 않다. 취사는 불가능해도, 이렇게 간단한 도시락과 간식을 먹으며 보내는 휴식 시간은 물놀이만큼이나 달콤하다.

간식을 먹고 난 후에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포레스트블루 음악분수와 시원하게 쏟아지는 바닥분수를 돌며 오전 시간을 아낌없이 만끽했다. 깨끗하게 관리된 대형 탈의실과 공공 화장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의무실 등 편의시설이 동선마다 잘 갖춰져 있어 이용하는 내내 만족스러웠다.

어느덧 1부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퇴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야외에 마련된 샤워 시설에서 가볍게 몸을 행구고, 머문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며 쓰레기를 챙겼다. 시설물 정비를 위해 전원 퇴장해야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4시간 동안 즐긴 휴식은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을 선물해 주기에 충분했다.



동탄패밀리풀

주소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앙로 466번길 38

문의 070-4129-4551

운영 기간 6월 27일(토) ~ 7월 12일(일) 토·일 운영

7월 14일(화) ~ 8월 30일(일) 매일 운영
(월요일 휴장(수질검사 진행))

운영 시간 오전 09:00~12:50 / 오후 14:00~17:50

이용 방법 선착순 예약제(동탄패밀리풀)

도심 속 물놀이에서 천연 온천 스파까지, 하피랜드

오후에는 몸의 피로를 풀어줄 곳을 찾았다. 화성시 팔탄면의 복합 온천 스파 시설 ‘하피랜드’가 바로 그곳이다. 이집트풍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이집트 물의 여신인 ‘하피(Hapy)’에서 이름을 따왔다. 최대 5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므로 주차 스트레스 없이 여유로운 입장이 가능하다. 매표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해 둔 바코드를 제시하고 입장권과 락커키를 전해 받았다. 하피랜드는 당일 예매 후 1시간 뒤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할인 티켓이 활성화되어 있어 방문 전에 스마트폰으로 구매해 두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첫 번째 팁이다.

수영복을 갈아입은 뒤 곧장 실내 워터파크 존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천연 온천수 특유의 매끄러운 수질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싼다. 하피랜드 워터파크 가장자리에는 둥글게 흐르는 유수풀이 자리 잡고 있다. 실내 공간이라 한낮의 뜨거운 자외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어 짜릿하게 떨어지는 워터슬라이드로 향했다. 몸무게 80kg 이하의 탑승 제한이 있는 이 슬라이드는 미취학 아동은 탈 수 없을 만큼 속도감이 있어 어른과 청소년들이 스릴을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오후 4시를 넘어가며 온몸에 기분 좋은 노곤함이 찾아올 때쯤, 워터파크를 나와 사우나에서 몸을 가볍게 행구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다. 하피랜드의 진정한 묘미는 물놀이 후 대형 찜질사존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넓게 펼쳐진 광장형 찜질방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땀을 짖 빼줄 불한증막과 참숯가마를 차례로 경험했다. 뜨끈한 황토 불가마와 소금 불가마에 누워 깊은 열기를 흡수하다 보면, 근육의 긴장과 피로가 마법처럼 말끔히 사라진다. 굳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얼음동굴에 들어가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신 뒤, 빈백이 나란히 놓인 힐링룸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즐기는 휴식은 그 자체로 완벽한 위안이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며 배꼽시계가 울릴 때, 하피랜드만의 아주 특별한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 이곳은 독특하게도 야외 평상에서 고객이 직접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고기와 관련 용품을 모두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거운 캠핑 장비나 번거로운 장비 없이 락커키 하나만으로 신선한 삼겹살과 불판, 집기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 평상에 자리를 잡고 달궈진 불판 위에 두툼한 고기를 올리자, '치익'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번지며 후각을 자극한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삼겹살을 한입 베어 물면, 하루 종일 물놀이와 찜질로 소모된 에너지가 단숨에 충전되는 기분이다.

하피랜드

주소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시청로 888 하피랜드

문의 1577-5752

운영 시간 10:00~19:00, 월·화 휴무



더 많은 물놀이 시설

화성시에는 건기 좋은 수려한 녹지 공간과 더불어 여름철이면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피서지로 변신하는 공원 물놀이장이 무려 23곳이나 조성되어 있다. 접근성이 뛰어난 동부권 13곳과 자연 친화적인 서부권 10곳으로 나누어, 올여름 온 가족의 더위를 날려줄 물놀이장 리스트를 총정리했다.

동부권 물놀이장(13곳)

동탄 신도시와 병점 등 동부권에 위치한 물놀이장들은 세련된 조경과 편리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원명	주소	특징
신리천공원(3~1공구)	동탄기흥로 212	신리천 조망과 어우러져 탁 트인 개방감
청계중앙공원	동탄순환대로19길 30	인근 아파트 단지와 뛰어난 접근성
노작호수공원	노작로 226-9	호수의 정취와 물놀이를 동시에 만끽
다람산공원	진안동 떡전교로 146	울창한 숲 산책로와 인접
치동천1호공원	동탄순환대로29길 38	치동천 수변 산책로와 연결
동탄호수공원	동탄순환대로 69	동탄의 랜드마크, 호수 전망 탁월
송방천공원	동탄순환대로 69 (동탄호수공원 내)	동탄호수공원과 연계
선남숲공원	동탄순환대로24길 101-1	숲세권 특유의 청량한 공기와 그늘
신리천공원	동탄신리천로 258	신리천 상류
자라외공원	동탄기흥로 115	아기자기함과 한적함
반월물빛공원	영동로 56-20	화려한 야간 경관
소라어린이공원	동탄순환대로10길 48	영유아들에 알맞은 규모
능동근린공원	동탄지성로 202	잔디밭과 산책로와 연계

북부·남부권 물놀이장(10곳)

넓은 부지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주말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한다.

공원명	주소	특징
도원체육공원	향남읍 행정동로 96	체육 시설과 연계
장집어린이공원	향남읍 장집길 57-11	아늑하고 평화로운 어린이 맞춤형
쌍봉산근린공원	우정읍 쌍봉산길 19	쌍봉산 조망
남양5호근린공원	남양읍 역골중앙로 100	남양 뉴타운 주민들의 쉼터
봉담호수공원	봉담읍 샘마을1길 13-6	호수 산책로를 따라 걷기 좋음
해오름공원	봉담읍 와우안길 74	대학가 및 주거지와 근접
삼봉근린공원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5-10	깔끔하게 정돈된 신축 공원 물놀이장
매송체육공원	매송면 매송북길 243	체육 부지 덕분에 개방감 탁월
비봉체육공원	새솔동 수노을중앙로 294	비봉습지공원 인접
별솔근린공원	새솔동 꽃내음길 190	송산그린시티 공원 인접

공통사항

운영기간 7월 ~ 8월

운영주기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운영시간 10:00 ~ 17:45 (45분 가동)

※ 매주 월요일 휴무, 주1회 수질검사 진행



THE 하다
preview

화성, 예술로 물들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8~9월 기획공연 프리뷰

올해 새로 문을 연 화성예술의전당을 비롯해 반석·누림아트홀, 그리고 푸른 잔디가 펼쳐진 야외공연장과 경건한 남양성모성지까지 화성 곳곳의 스펙트럼 넓은 무대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품고 관객을 기다린다.

탁 트인 야외에서 즐기는 로맨틱한 피크닉 콘서트부터 국립단체들이 선보이는 묵직한 명작 시리즈까지 장르를 아우르는 풍성한 무대들을 만나보자.

문의 1588-5234

반석아트홀

클래식 애호가와 입문자를 위한 오페라 갈라 렉처 콘서트 <Viva Opera! 사랑에 살고 노래에 살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오페라 명곡들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오페라 갈라 형식으로 문화의 날을 맞아 전석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다.



일시 2026. 8. 26.(수)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원 대상 8세 이상 관람가

한국 음악의 새로운 현재를 만나는 무대
금요일N 이날치

전통 판소리를 동시대적 사운드로 확장한 강렬한 리듬과 다성(多聲) 보컬 퍼포먼스 무대. 판소리 다섯 바탕의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록·펑크·힙크·힙합적 감각을 흡수한 사운드를 선보인다.



일시 2026. 9. 4.(금)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잔디석 3만원 대상 8세 이상 관람가

밤을 수놓는 섬세한 기타 선율
렉처콘서트 <클래식기타리스트 박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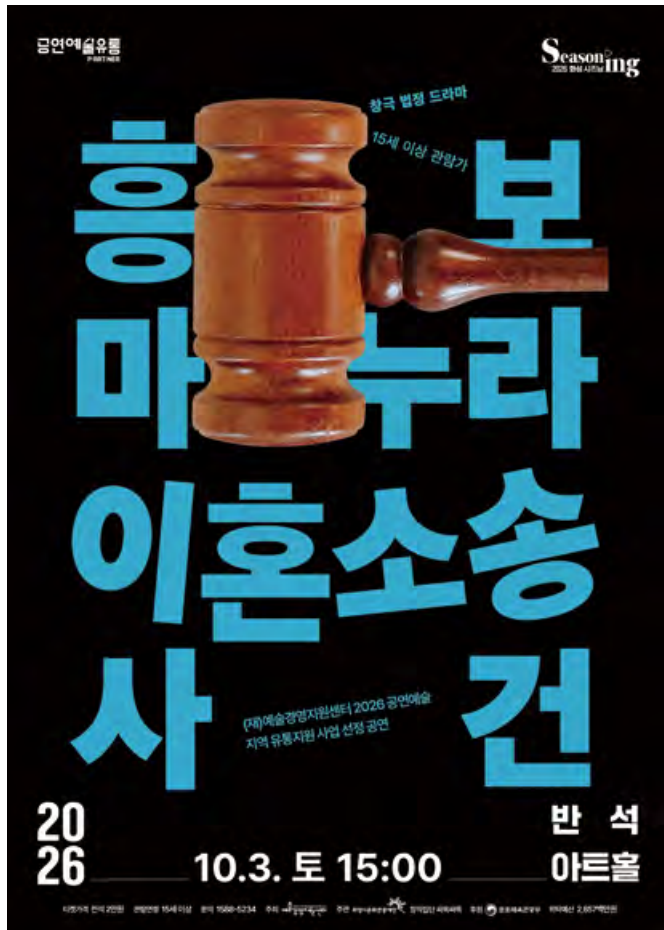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알람브라 콩쿠르를 비롯해 아홉 차례 국제 콩쿠르 우승을 기록한 기타리스트 박규희. 섬세한 터치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전하며 아련한 선율 속에서 잊고 있던 추억과 감성을 깨우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일시 2026. 9. 30.(수)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원 대상 8세 이상 관람가

법정에서 펼쳐지는 흥보부부의 '창극 법정 드라마'
창극 <흥보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흥보 마누라가 '조선 최고의 착한 남자' 흥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판소리 '흥보가'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변론에 반론이 얹치락 뒤흔치락, 장단과 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운다!



일시 2026. 10. 3.(토) 15:0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2만원 대상 15세 이상 관람가

우리 전통 춤의 흥과 생동감이 살아 숨 쉬는 무대
렉처콘서트 <살아있는 우리 춤 이야기>

태평무, 부채입춤, 함흥검무 등 궁중무와 전통무용은 물론, 진도북과 설장고, 사자놀이&판굿 등 농악 기반의 다채로운 전통 춤 레퍼토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일시 2026. 10. 31.(토) 16:0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원 대상 8세 이상 관람가

인성, 창의력, 상상력을 한 번에 자극하는 매직스크린극 키즈 시즈닝 매직스크린 가족극 <오버코트>

주인공 제인의 몸짓에 맞춰 무대 위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생동감 넘치는 음악과 독창적인 효과음, 그리고 하얀 스크린의 무궁무진한 변신!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들을 거리로 가족 간의 소통과 관심, 사랑의 중요성을 포근하게 일깨워줄 공연.



일시 2026. 8. 15.(토) 11:00, 14:00 장소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가격 전석 1만원 대상 36개월 이상 관람가

미스터트롯2 최종 Top 7에 빛나는 최수호의 공연! 트로트 스타즈 <더트롯 최수호>

2026년 트로트 스타즈 마지막은 깊은 전통성과 젊은 감성을 겸비한 차세대 트로트 아티스트 최수호가 선보인다. 국악 기반의 탄탄한 발성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바탕으로, 정통 트로트는 물론 포크 감성까지 폭넓게 펼칠 특별한 무대.



일시 2026. 9. 11.(금) 19:30 장소 누림아트홀 가격 전석 5만원 대상 8세 이상 관람가

가족을 위한 클래식 공연
키즈 시즈닝 키즈 클래식 콘서트 <동물의 사육제>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스의 대표작 「동물의 사육제」를 중심으로 각 악장이 표현하는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즐거운 해설과 샌드아트 영상으로 풀어냈다. 아이들이 음악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



일시 2026. 10. 10.(토) 14:00 장소 누리아트홀 가격 전석 1만원 대상 전체관람가

야외공연

야외에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크로스오버 무대
반석산피크닉 Love in season 1 <정선아x엘블렌테>

뮤지컬 배우 정선아와 팝페라 그룹 엘블렌테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무대. 라이브 밴드 연주가 더해진 생동감 있는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품격 있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일시 2026. 9. 5.(토) 18:00 장소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성당 고유의 울림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클래식 무대
제2회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부터 더블베이스 스페셜, 페스티벌 앙상블, 국립합창단&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주페 레퀴엠'까지 이어지는 화성특례시 대표 클래식 음악제.



일시 2026. 9. 11.(금) ~ 9. 13.(일) 장소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소성당 가격 11일, 13일 2만원 / 12일, 1만원 대상 8세 이상 관람가

야외에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크로스오버 무대
반석산피크닉 Love in season 2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뮤지컬 배우 정동화, 전혜선과 소프라노 오효진이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공연. 오케스트라 하늬바람의 풍부한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깊이 있는 감성과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일시 2026. 9. 19.(토) 18:00 장소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가격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잔디석 3만원

‘이 시대 새로운 수궁가의 탄생, 스테디셀러 창극 제작진이 선사하는 우리 이야기 한마당’
국립창극단 <귀토-토끼의 팔란>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극, 서울예술단의 대표 레퍼토리 <귀토-토끼의 팔란>이 화성예술의전당을 찾는다. 연출가 고선웅의 독창적인 연출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감각적인 무대가 어우러져 유쾌한 해학 속 삶을 향한 깊은 울림을 만나보자.



일시 2026.08.21.(금) 19:30 / 08.22.(토) 15:00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행복석) 1만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청바지를 입은 비올레타의 화려한 등장,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린 베르디의 걸작
국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베르디의 대표 오페라, 국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가 화성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2023년 '힙한 오페라'라는 호평을 받은 연출가 뱃상 부사르의 세련된 감각이 더해져 사랑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본질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



일시 2026.09.11.(금) 19:30 / 09.12.(토) 15:00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행복석) 1만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위기에 빠진 판타지아, 도로시가 돌아왔다! 클래식과 마법이 만나는 환상의 어드벤처 뮤지컬 가족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로시 리턴즈>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가족뮤지컬 <매직 판타지아 - 도로시 리턴즈>가 화성예술의전당을 찾는다. 클래식 명곡과 화려한 마술,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잊지 못할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한다.



일시 2026.11.7.(토) 14:00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행복석) 1만원 대상 24개월 이상

통쾌한 풍자와 신랄한 호연으로 큰 웃음을 주는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아자 유일무이한 '코메디 레퍼토리 국립극단 <스카팽>

프랑스 대표 극작가 몰리에르의 명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미디, 국립극단 대표 레퍼토리 <스카팽>이 화성예술의전당을 찾는다. 재치 넘치는 스카팽의 유쾌한 활약과 날카로운 풍자, 통쾌한 웃음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시 2026.11.20.(금) 19:30 / 11.21.(토) 15:00 / 11.22.(일) 15:00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행복석) 1만원 대상 8세(초등학교) 이상

라포엠·김소현·김소향 당신의 겨울 밤을 가장 빛나게 할 단 하나의 콘서트 화성예술의전당 기획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 <Winter Serenade>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장 아름답게 물들일 특별한 무대 <Winter Serenade>가 화성예술의전당을 찾는다. 라포엠의 품격 있는 크로스오버 사운드와 뮤지컬 배우 김소현, 김소향의 깊은 감성이 어우러져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감동으로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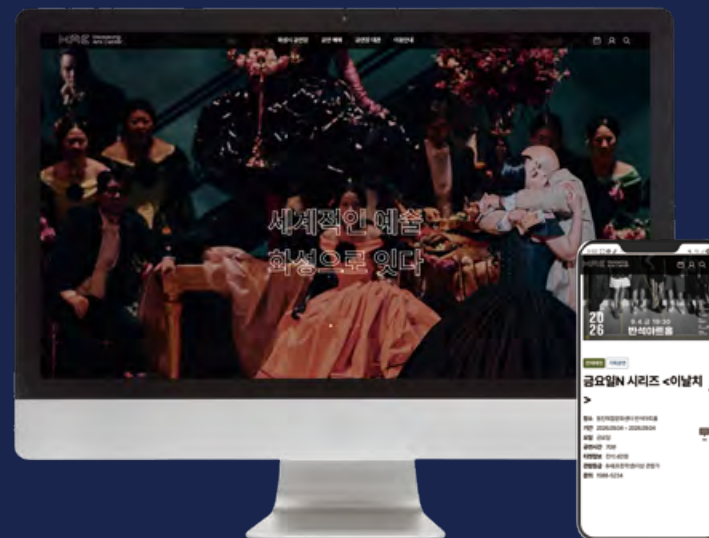


일시 2026.12.24.(목) 19:30 장소 누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R석 7만원, S석 5만원 5천원, A석(행복석) 1만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문화 공연을 당신의 일상 속으로

화성시 주요 공연장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통합 홈페이지에서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과
화성예술의전당의 다채로운 무대를 확인하고 예매까지 한 번에 즐겨보세요.



hac.hcf.or.kr

문화 캘린더

Culture Calendar

멀리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우리 동네 전시부터 대형 콘서트 정보까지!

문화캘린더가 매일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알려드립니다.

8 August

● 공연
● 전시
● 축제
● 행사
● 기타

- 1 ● 여름방학 특강 <2026 썸머 미디어 스쿨>
7. 27.(월) ~ 8. 14.(금) / 화성시미디어센터
- 판타지 발레 <구미호>
8. 1.(토) 15:00 /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
- 가가호호 [호호한 화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8. 29.(토), 8. 4.(화)~8. 18.(화) /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봉담와우도서관
- 2 ● 경기공유학교 [연극학교]
~8. 30.(일) / 동탄북합문화센터
- 15 ● 매직스크린 가족극 <오버코트>
8. 15.(토) 11:00, 14:00 /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 21 ● 국립창극단 <귀토-토끼의 팔란>
8. 21.(금) 19:30, 8. 22.(토) 15:0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26 ● Viva Opera!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8. 26.(수) 19:30 / 동탄북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9 September

- 2 ● 가가호호 [호호한 화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9. 2.(수)~9. 23.(수), 9. 5.(토)~9. 12.(토), 9. 6.(일)~9. 27.(일) / 동탄북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 4 ● 금요일N 시리즈 <이날치>
9. 4.(금) 19:30 / 동탄북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 5 ● 반석산피크닉 Love in season 1 <정선아x엘블렌데>
9. 5.(토) 18:00 /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 11 ● 국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9. 11.(금) 19:30, 9. 12.(토) 15:0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토로트 스타즈 <다트롯 최수호>
9. 11.(금) 19:30 /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 <손열음의 피아니스트 사진 >
2026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9. 11.(금) 19:30 /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 12 ● <베이스 퀸, 성미경> 2026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9. 12.(토) 13:00 / 남양성모성지 소성당
- <비발디, 빛나는 베네치아 - 페스티벌 앙상블>
2026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9. 12.(토) 17:00 /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 13 ● <주페 '레퀴엠' - 국립합창단 &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2026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9. 13.(일) 18:00 /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 19 ● 반석산피크닉 Love in season 2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9. 19.(토) 18:00 /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 20 ● 무수비좌의 인형극 <피노키오>
9. 20.(일) 15:0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30 ● 렉처콘서트 <클래식기타리스트 박규화>
9. 30.(수) 19:30 / 동탄북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10 October

- 3 ● 창곡 <홍보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10. 3.(토) 15:00 / 동탄북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 2026 정조효문화제
10. 3.(토) ~ 10. 4.(일) / 정조효공원, 용-건릉 일대
- 4 ● 2026 정조대왕능행차
10. 4.(일) / 동탄 센트럴파크, 현충공원, 황계동, 정조효공원 일대
- 10 ● 키즈 시즌닝 키즈 클래식 콘서트 <동물의 사육제>
10. 10.(토) 14:00 / 누림아트홀
- 17 ● 창작뮤지컬 <만천명일 걱정을 허하라>
10. 17.(토) 17:0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24 ● 창작오페라 <왕의 별> 쇼케이스
10. 24.(토) 15:0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31 ● 2026 화성시 미디어 페스티벌
10. 31.(토) 11:00 ~ 17:00 / 화성예술의전당 야외광장
- 2026 미디어 아트쇼
10. 31.(토) 19:00 ~ 20:30 / 화성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
- 렉처콘서트 <살아있는 우리 춤 이야기>
10. 31.(토) 16:00 / 동탄북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11 November

- 7 ● 가족뮤지컬 <매직 판타지아-도시 리턴즈>
11. 7.(토) 14:0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10 ● 보컬 마스터 시리즈 III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11. 10.(화) 19:3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20 ● 국립극단 <스카펄>
11. 20.(금) 19:30, 11. 21.(토) 15:00, 11. 22.(일) 15:0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 21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라보엠>
11. 21.(토) 14:00 /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

12 December

- 19 ● 송년기획 <하모나이즈 콘서트 Winter&Christmas>
12. 19.(토) 17:00 /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
- 24 ●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 <Winter Serenade>
12. 24.(목) 19:30 /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place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곳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은 분은 031-8015-8112로 문의 주세요.

배포처

동탄북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화성예술의전당

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왕배푸른숲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삼괴도서관
송산도서관
송린이음터도서관
정남도서관
진안도서관
태안도서관
노을빛도서관
작은도서관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
마도작은도서관

팔탄작은도서관
양감작은도서관
호수나무작은도서관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
봉담와우도서관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작은도서관

문화시설

노작홍사용문학관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모두누림센터
유엔아이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소다미술관
엄미술관

카페

다락
다원
손커피연구소
차마시는뜰
카페오키아
카페 라온트리
디안
섹션
프라하

호텔

라비돌리조트
푸르미르호텔

의료시설

서울건치과
관내 약국 40곳

기타

독립서점 모모책방
갤러리문화아지트
달팽이 그림책방
모퉁이책방
바이올린하우스
신자연주의공방
공방 7보다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체 배포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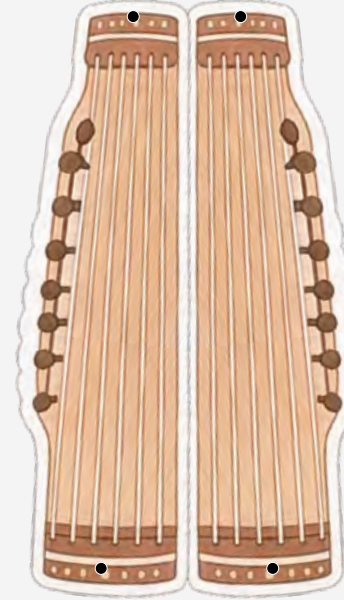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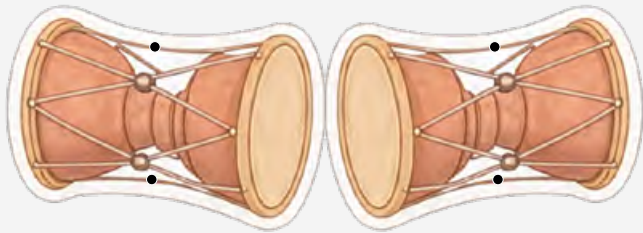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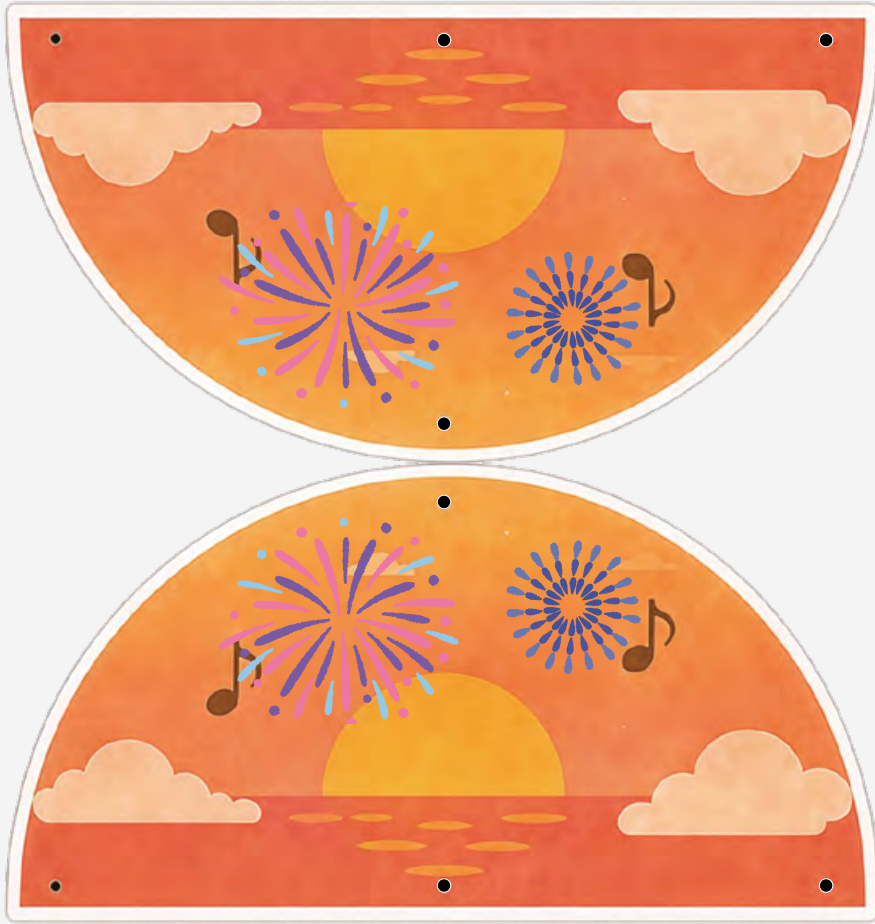
diy

서해안 선셋 오브제 모빌 만들기

햇살이 지고 음악이 흐르는 순간,
불꽃이 피어나는 찰나의 장면을 모빌로 만들어 보세요

완성 예시





※ 완성된 오브제 모빌의 멋진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9월 10일까지 사진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기재 필수) 보내실 곳 : hcfart@hcf.or.kr

만드는 방법은 뒷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만들기 팁** STEP 1 도안과 실을 준비해 주세요. 검은선을 따라 도안을 모두 오려주세요.
- STEP 2 양면이 되게 같은 모양의 도면을 폴로 붙여주고, 검정부분을 바늘에 실을 꿰어 주세요.
- STEP 3 완성 예시를 참고해 모빌의 균형을 맞춰 연결하면 완성!
- STEP 4 완성된 모빌의 사진을 남겨보세요.
- ※ **주의!** 가위를 사용할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화분》은 웹진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waboon.hcf.or.kr



화성시문화관광재단
SNS에서
재단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화분》독자 만족도 조사

《화분》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의미 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 조사에 응답
설문기간 2026년 9월 15일까지
당첨발표 2026년 9월 18일(개별 연락)

